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언어생활 탐구

이관규 외

1. 삶과 만나는 언어생활

01. 언어생활 탐구의 필요성

탐구 1 언어생활 탐구의 이유

확인 문제

11~14쪽

- | | | | | |
|---------|--------|-------|-------|-------|
| 01 O | 02 X | 03 의문 | 04 O | 05 공유 |
| 06 ㄱ, ㄷ | 07 숟가락 | 08 O | 09 받침 | 10 X |

- 01 인간은 언어생활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다. 즉 언어는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세상을 알아 가는 핵심 도구이다.
- 02 언어생활 탐구는 언어 자료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을 하거나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타인에게 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해 더하기

주체적 언어생활을 위한 탐구의 힘

언어생활 탐구는 단순히 규범을 수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언어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탐구는 언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 아니라, 언어 관습과 표현 방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타인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책임 있게 형성하는 주체적 태도를 갖게 한다.

- 03 언어 자료에 의문을 품고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언어생활 탐구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형’과 ‘작은형’이라는 표현을 보며 같은 ‘작은’, ‘형’인데 어떤 경우에는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는 붙여 쓰는지 의문을 품고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04 언어생활을 성찰하면 무심코 사용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도, 즉 언어생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표현 속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다시 살펴볼게 되며, 특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차별 의식을 줄 수 있는지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해 더하기

언어생활의 성찰적 태도와 민감성

언어생활을 정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뿐 아니라 성찰적 태도와 민감성이 필요하다. 성찰적 태도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 유래, 그것이 상대방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민감성이란 일상적인 표현 속에 숨겨진 언어의 원리나 차별·편견의 요소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이다.

05 언어생활 탐구는 개인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때 ‘공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탐구 경험을 나누며 언어생활을 함께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능동적인 언어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06 언어생활 탐구는 단순히 언어 지식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언어 사용을 돌아보며 바람직한 언어 태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생활을 탐구할 때에는 언어 주체로서 상황이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 다양한 맥락에 맞는 표현을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한다(ㄱ), 그리고 더 나아가 언어가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ㄷ), 그것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 사회 및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풀이 ㄴ. 교과서에 나온 문법 규칙이라 하더라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 그 원리와 가치를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7 여학생은 ‘젓가락’의 받침은 ‘ㅅ’인데 ‘숟가락’의 받침은 왜 ‘ㄷ’인지를 의문의 출발점으로 삼아 탐구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언어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숟가락’의 ‘ㄷ’ 받침이다.

08 여학생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젓가락’과 ‘숟가락’이라는 단어의 받침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익숙한 언어 표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표기 원리와 형성 과정을 탐구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09 남학생은 ‘젓가락’의 받침이 ‘ㅅ’인 것은 젓가락의 모양이 ‘ㅅ’처럼 물건을 집을 수 있기 때문이고, ‘숟가락’의 받침이 ‘ㄷ’인 것은 숟가락이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는 모양으로 ‘ㄷ’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남학생은 글자의 형태와 사물의 모양을 연결하여 받침이 달라진 이유를 추론하고 있다.

10 이 자료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학생은 “너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라고 말하며 남학생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학생의 설명은 명확한 근거 없이 모양에서 이유를 찾은 것으로, 여학생의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알아두기

다양한 매체의 활용

언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매체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터넷 매체: 인터넷 검색, 인공 지능(AI) 대화 서비스, 국립국어원 등 각종 전문 누리집
- 인쇄 및 방송 매체: 국어 사전, 언어 관련 서적(인쇄 매체), 우리말 교양 프로그램(방송 매체) 등

확인문제

18~23쪽

- 01 민감성 02 책임감 03 높다 04 ㄷ 05 ㉠
06 음료 나왔습니다. 07 ㉠ 08 X
09 종결 표현 10 의지 11 서비스 12 O

- 01 민감성의 사전적 의미는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이다. 언어생활에서의 민감성이란 무심코 사용되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고민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 02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은 책임감의 사전적 정의에 해당한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언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 03 디지털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의사소통한 내용이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그 파급력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서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가 특히 요구된다.

이해 더하기

디지털 매체의 특성

- 비선형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
- 상호 작용성: 매체와 사용자, 사용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함.
- 복합 양식성: 문자, 소리, 동영상 등이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함.
- 비동기성: 같은 시간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음.
- 가공의 용이성: 복제와 수정이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04 언어생활의 책임감은 언어가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태도(ㄷ)는 언어생활의 책임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답풀이 ㄱ. 언어 사용의 결과보다 자신의 의도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은 언어가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책임감과 거리가 멀다.
- 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전파하는 것은 디지털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 05 이 자료는 카페, 신발 가게, 병원, 계산대 등 서비스 업종에서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 신발은 이만 원이세요.”, “진료실로 들어오실게요.”, “진료비 오만 원 계산하실게요.”와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높임 표현이 일상적으로 관습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06 ‘나왔습니다’는 음료에 높임 표현을 적용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높임의 대상은 손님이므로 음료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은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이 어법에 맞다. 높임 표현은 높

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격이 없는 사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높여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이나 신체 부위에 한해 간접 높임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07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임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법을 지키지 않은 표현이 손님에게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법을 지켜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불쾌해하는 손님이 있어, 언어 사용자들은 어법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우선시하게 된다.
- 08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일 때 사용된다. 상점에서 판매의 대상이 되는 음료나 신발은 사람이 아니므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에 ‘-시-’를 사용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 09 “진료비 오만 원 계산하실게요.”는 주어가 내원자이므로 ‘-시-’를 사용한 높임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르게요’에서 ‘-르게’는 주어의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주어가 ‘나’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나’가 아닌 내원자이므로 종결 표현이 맥락에 맞지 않아 잘못 쓰였다.

알아두기

어법에 맞지 않는 서비스 언어의 두 가지 유형

유형	예	올바른 표현
잘못된 높임 표현	• 주문하신 음료 나오 셨습니다. • 이 신발은 이만 원이 세요.	• 주문하신 음료 나왔 습니다. • 이 신발은 이만 원이 예요.
맥락에 맞지 않는 종결 표현	• ○○○님, 진료실로 들어오실게요. • 진료비 오만 원 계산 하실게요.	• ○○○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 진료비 오만 원 계산 해 주세요.

- 10 ‘-(으)르게’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주어는 1인칭(‘나’)만 사용할 수 있으며, 2·3인칭은 사용할 수 없다.
- 11 “음료 나왔습니다.”, “들어오실게요.”는 모두 카페, 신발 가게, 병원 등 서비스 장면에서 직원이 손님을 응대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서비스 상황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보다 불친절하다는 비난이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법보다 공손함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 12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법에 맞는 표현보다 더 공손한 표현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바른 언어문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인 ‘우리’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① 07 ㉔: 제품은 포장해 드릴까요? ㉕: 잠시
 만 기다려 주세요. 08 ① 09 ③ 10 언어
 생활의 민감성이란 무심코 사용되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 예
 민하게 반응하는 태도이다. '몰래카메라'처럼 익숙하게 쓰이
 는 말이라도 그 안에 담긴 관점을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언
 어가 범죄의 위험성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디지
 털 매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재생산되
 며 파급력이 매우 크다. <보기>의 댓글에서는 이러한 매체 특
 성으로 인해 어휘에 대한 오해가 성찰 없이 빠르게 확산되
 고,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
 의 언어가 공동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통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01 '젓가락'과 '숟가락'은 모두 음식을 먹는 도구를 가리키는 비슷
 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받침이 각각 'ㅅ'과 'ㄷ'으로 서로 다르
 게 나타난다. (가)의 여학생은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익숙한
 언어 표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형성 원리와 이유
 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언어생활 탐구를
 위한 주제로는 '젓가락과 숟가락의 받침이 서로 다른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① '사이시옷'이 쓰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젓가락'과 '숟가락'의 받침 차이를 직접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③ 발음과 표기 불일치 현상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주제로, 두 단어의
 받침 차이라는 구체적 문제와는 맞지 않는다.
 ④ 어휘의 시대적 변화를 다루는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받
 침 차이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⑤ 사물의 모양과 표기법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02 (나)에 따르면 '젓가락'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은 '저'의 발음이
 [저까락/절까락]으로 나기 때문이다. 이는 '저'의 첫소리가 아니
 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을 반영한 사이시옷으로,
 '저'와 '가락'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발음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알아두기 '젓가락'의 사이시옷 표기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뒷말
 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젓가락'
 은 '저'와 '가락'이 결합한 말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
 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적는다.

03 (가)의 여학생은 평소 무심코 사용하던 '젓가락'과 '숟가락'이라
 는 익숙한 단어에서 스스로 의문을 품고, 남학생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는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탐구 주제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과 생각을 나누며 탐구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 그러나 탐

구한 내용을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에 나타나지 않으며, 언어생활 탐구의 출발
 점으로서의 자세와도 거리가 멀다.

➤ 이해 더하기

언어생활 탐구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

언어생활 탐구의 주제는 거창한 언어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은 의문이 탐구의 씨앗이
 된다. 탐구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탐구 주제를 발견
 할 수 있다. 둘째, 직관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탐구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탐구 주제
 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주제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심을 갖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태도
 를 갖추는 것이다.

04 언어생활 탐구란 의미 있는 탐구 주제를 발견하여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 언어 자료를 분석하
 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ㄷ), 탐구를
 통해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ㄴ), 탐구
 결과를 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언어문화 실천에 기
 여할 수 있다(ㄹ).

○답풀이 ㄱ. 언어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모든 어휘의
 어원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또한 언어생활 탐구의 목적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기보다 자신의 언어 사용을 성찰하고 타인과 바람직하
 게 소통하는 데 있으므로, 어원 규명을 언어생활 탐구의 필요성으로 보
 기 어렵다.

알아두기 언어생활 탐구의 필요성

언어 자료의 능동적 분석 및 해석	언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음.
다양한 맥락에 맞는 언어 표현 탐구	언어생활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 를 수 있음.
언어생활 성찰	민감성을 갖고 국어 문화 발전에 기 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공동체와 탐구 결과 공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실천할 수 있음.
언어의 힘과 가치 포착	개인적·사회적 삶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05 방송 매체도 출처 확인이 필요한 언어 자료 중 하나이다. 언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방송
 매체가 공신력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만
 으로 별도의 검증 없이 자료를 그대로 탐색에 활용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②, ⑤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 국어 대사전, 전문 서적
 은 신뢰도 높은 언어 탐구의 대표적인 도구이다.

③ 인공 지능 대화 서비스는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의 정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이해 더하기

인공 지능 대화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 태도

인공 지능 대화 서비스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정보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인 정보 입력에 주의해야 한다.

- 06** 언어생활에서 책임감이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태도는, 언어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는 언어생활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답풀이 ②는 자신의 말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 ③은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태도, ④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태도, ⑤는 자신의 언어 사용을 성찰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모두 언어생활의 책임감을 실천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알아두기

언어생활의 민감성과 책임감

개념	사전적 의미	언어생활에서의 의미
민감성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	무심코 사용되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 미묘한 의미 차이를 포착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책임감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언어 사용이 타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

- 07** (나)에 따르면 ‘나오셨습니다’, ‘이만 원이세요’의 ‘-시-’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높이는 잘못된 높임 표현이다. ㉠의 ‘포장이신가요?’도 마찬가지로 사물인 ‘제품’에 ‘-시-’를 사용한 잘못된 높임 표현이므로, “제품은 포장해 드릴까요?”로 고쳐야 한다. (다)에 따르면 ‘-ㄹ게요’는 주어의 약속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의 ‘기다리실게요.’는 주어가 상대방(내원자)임에도 ‘-ㄹ게요’를 사용한 것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종결 표현이다. 따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로 고쳐야 한다.

- 08** (가)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진료실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해야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현이지, 어법을 잘 몰라서 확산된 표현이 아니다.

○답풀이 ② (가)에서 서비스 이용자와의 갈등(불쾌감, 화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서비스 상황에서는 친절함과 공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법보다 공손함이 우선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면 손님이 불쾌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비아냥을 듣더라도 불쾌해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명령형 표현 대신 ‘-ㄹ게요’와 같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09** ㉠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세력을 넓히게 된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인 ‘그들’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언어생활에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 수용 방식이 타인의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답풀이 ① 서비스 이용자가 언어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진술은, 언어생활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은 서비스 이용자 역시 표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할 뿐, 민감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 ㉠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중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④, ⑤ 어법적 규범보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 10** **서·논·술형** 언어생활의 민감성이란 무심코 사용되는 말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고민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도이다. 〈보기〉에서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은 무단 촬영이라는 범죄 행위를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볍게 표현한 언어로, 사람들이 범죄의 위험성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처럼 익숙하게 사용해 온 말이라도 그 안에 담긴 관점과 의미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잘못된 언어가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신과 주변의 언어생활을 민감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언어생활의 민감성의 의미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
〈보기〉의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여 언어생활에 민감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 11** **서·논·술형** 〈보기〉에서 ‘사흘’이 3일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 및 재생산되며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서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디지털 매체의 특성(정보의 빠른 확산과 큰 파급력)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
댓글에서 나타난 문제점(허위 오해의 확산, 무분별한 비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해결 방안으로 비판적 수용과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 태도를 제시하였다.	☐

02. 언어생활 탐구 과정

탐구 1 탐구 주제 발견하고 언어 자료 수집·분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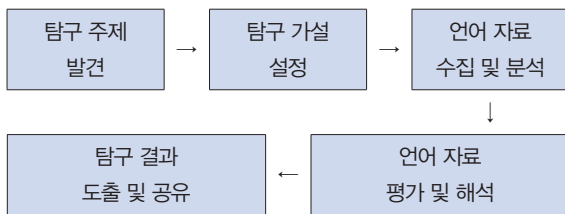
확인 문제

34~37쪽

- 01 언어 02 O 03 O 04 가설 05 ㄱ
06 ㄷ 07 -어지다 08 살려 09 X 10 ㉠

- 01 언어는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핵심 도구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며,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02 탐구 주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 지식을 활용하거나, 직관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탐구 주제를 발견하기도 한다.
- 03 언어생활 탐구에서 탐구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주체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익숙한 언어 현상을 낯설게 바라보고 의문을 품는 태도가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
- 04 탐구 주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가설은 긍정문의 형태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탐구가 진행된다.

알아두기 언어생활 탐구의 과정



- 05 언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단일한 관점이나 가치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언어 자료가 지니는 긍정적·부정적 면을 균형 있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한 관점으로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ㄱ)은 수집 및 분석 시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ㄴ, ㄷ, ㄹ.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매체에서 얻은 언어 자료는 출처를 확인하고 취사선택하여 수용해야 한다.
- 06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피동 표현이 실현된 문장을 피동문이라 한다. 피동문은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07 피동 표현을 두 번 이상 겹쳐서 사용한 것을 이중 피동이라고 한다. '쓰여지다'는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적 피동 '쓰이다'에, 다시 통사적 피동 '-어지다'가 합쳐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알아두기

피동 표현의 유형

유형	실현 방법	예
파생적 피동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가-' 결합	보이다, 잡히다, 밀리다, 안기다
통사적 피동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 결합	만들어지다, 알려지게 되다

+ 이해 더하기

단어의 의미로 실현되는 피동 표현(어휘적 피동)

국어의 피동 표현은 피동 접사가 결합하는 파생적 피동과 '-어지다'가 쓰이는 통사적 피동 외에도, 특정 동사의 의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당하다', '받다' 등은 문법적 표지 없이도 주어가 어떤 동작을 겪는 상태를 나타내어 피동의 의미를 형성한다. '사기를 당하다', '칭찬을 받다'와 같은 표현이 그 예로, 단어의 의미만으로 피동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형태적 표지를 통해 실현되는 파생적·통사적 피동과 달리 의미에 의해 피동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결국 주어가 외부의 작용을 받는다는 공통된 의미를 공유한다.

- 08 필자는 이중 피동 표현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금지하기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과 표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 표현을 잘 살려 쓸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 09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잊혀지다'는 '잊히다(파생적 피동)'에 '-어지다(통사적 피동)'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다만 필자는 '잊혀지다'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어법상 큰 문제가 없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중 피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 10 필자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연쇄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중 피동을 무조건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은 이러한 사용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즉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연쇄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 오답풀이** ① 이중 피동이 특정 상황에 한정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널리 사용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 ② 피동 표현의 과도한 중복 적용이라는 일반적 설명은 가능하나, 이 같은 중복 자체보다 실제 사용의 확산 여부에 초점을 둔다.
- ③ 이중 피동을 단일 피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부 견해로 제시될 뿐, 필자의 중심 입장은 아니다.
- ④ 어법상 문제가 없는 표현임에도 사용을 꺼린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확인 문제

40~42 쪽

- 01 X 02 선별, 조직 03 일반화 04 X
05 (1) O (2) X

- 01 자료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집한 자료가 탐구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가설과 상관이 없다면 탐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02 언어생활 탐구에 활용되는 언어 자료는 음운, 단어, 문장, 문단, 글 단위까지 다양하다. 또한 자료마다 관점이 다르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 03 언어 자료를 평가하고 해석한 뒤에는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가설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 단계로 돌아가 탐구 과정을 검토한다.
- 04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호하거나 장황한 표현, 함축적인 표현이 아닌 명료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05 (1) 카드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 카드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띄어쓰기이다. 로마자/외래어 표기법 관련 오류는 온라인에서 20회(0.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해 더하기

탐구 보고서의 표현상 특징

탐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글쓰기와 달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	감정적 수식어를 배제하고, 조사·관찰한 사실을 중심으로 표현함.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문장을 짧고 분명하게 쓰며, 모호한 표현 대신 단정적 종결을 사용함.
체계적 짜임	핵심 내용은 번호나 기호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제시함.
정확한 개념어	관련 개념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설명을 덧붙임.
시각 자료와의 유기적 연결	표나 그래프를 본문에서 근거로 활용하여 설명과 연결함.

- 01 ④ 02 ⑤ 03 파생적 피동 04 ②
05 ①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언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단일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11 전국 만 13세 이상~69세 이하 국민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가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맞춤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1 <보기>의 A는 책을 읽다가 '태워 먹다'와 '태워서 먹다'처럼 이제껏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써 온 표현에 의문을 품고 탐구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언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탐구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익숙한 표현의 의미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는 언어생활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
- 오답풀이 ① 잘못된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호기심에서 탐구가 시작되고 있다.
② A가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국어의 특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써 온 표현에서 의문을 품은 것이다.
③ 자신과 타인의 언어 습관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해 온 표현에서 의문을 발견한 것이다.
⑤ 전문 서적을 읽으며 지식을 쌓는 것은 탐구 주제 발견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기>의 A가 탐구 주제를 발견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02 (나)는 이중 피동 표현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 어법상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⑤가 (나)의 관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가)는 이중 피동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법에 맞지만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② (가)는 '쓰여지다', '쓰여지게 되다'를 예로 들어 모두 '쓰였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중 피동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일부만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③ (나)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이중 피동 표현은 인정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만이라도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어법상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아두기 이중 피동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의 관점	이중 피동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고쳐 써야 함. 예 '쓰여지다', '쓰여지게 되었다'는 모두 '쓰였다'로 표현해야 함.
(나)의 관점	자연스러운 이중 피동 표현은 인정할 필요가 있음. 예 '잊혀지다'와 같이 이미 널리 사용되어 자연스러운 표현이 존재함.

03 '놓여 있다'의 '놓여'는 동사 '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놓이다'가 활용된 형태이다. 이때 주어 '꽃병'은 행위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당하는 대상으로 나타나며,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가 실현된다. 따라서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파생적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➊ 이해 더하기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하여 형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간은 의미의 중심을 이루고, 어미는 시제, 높임, 종결 등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놓이다'에 어미가 결합하면 '놓여', '놓이고', '놓인다'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04 (나)는 이중 피동 표현이 효과적인 의미 전달과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쓰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그대가 잊혀지지 않아요.'는 '그대가 잊히지 않아요.'보다 아쉬움의 정서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이중 피동을 살려 쓴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답풀이 ① (나)의 관점에서 '잊혀지지'는 문법 규범을 엄격히 지킨 표현이 아니라, 이중 피동을 살려 쓴 표현이다.

③ '잊혀지다'는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낯선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잊혀지지'는 '잊히지'보다 형태가 더 길어진 것으로, 간결하게 바꾼 것이 아니다.

⑤ (나)의 관점에서 이중 피동의 효과는, 전달하려는 의도와는 모순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서나 의미를 강조하고 극대화하는 데 있다.

➋ 이해 더하기

능동과 피동

문장에서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능동(能動)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피동(被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능동문이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피동문이다.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실체는 동일하지만, 능동문은 행위의 주체를 전면에 드러내고 피동문은 행위의 대상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능동과 피동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같으나, 어떤 대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능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피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05 ㉠의 '쓰여지다'는 파생적 피동('쓰이다')에 통사적 피동('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의 '그려졌다'는 동사 '그리다'에 통사적 피동 '-어지다'만 결합한 것으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중복적으로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풀이 ② '쌓여지다'는 파생적 피동 '쌓이다'에 통사적 피동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보여지다'는 파생적 피동 '보이다'에 통사적 피동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읽혀지다'는 파생적 피동 '읽히다'에 통사적 피동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나뉘어지다'는 파생적 피동 '나뉘다'에 통사적 피동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6 아무리 좋은 자료를 수집했다라도 그것이 탐구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가설과 상관이 없다면 탐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가 탐구 주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답풀이 ① 언어 자료의 가치는 탐구 주제와의 관련성과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전문가의 검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② 탐구 결과의 설득력은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 과정의 타당성에서 확보되며, 자료의 흥미 요소는 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③ 자료 간의 차이나 예외 사례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단서가 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탐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

④ 자료 해석에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면 탐구 결과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07 탐구 주제는 '주체 간접 높임 표현'이다. ㉠의 '검색 결과가 없으시면'에 쓰인 '-(으)시-'는 주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색 결과'를 높임 잘못된 높임 표현이다. 따라서 ㉡는 주체 간접 높임 표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 표현이다.

② ㉡는 '-(으)시-'를 활용한 주체 간접 높임 표현에 해당하며, 높임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의 '마음'은 주체인 '어머니'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는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 표현으로, 주체를 낮춘 표현이 아니다.

알아두기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유형	개념	예
직접 높임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다.
간접 높임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선생님은 목소리가 부드러우시다.

08 언어생활 탐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작성이 있다. 언어생활 탐구 보고서는 탐구 활동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 절차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탐구 내용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왜곡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탐구 결과가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탐구 절차와 결과가 명확히 드러날 때 탐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보고서에는 함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대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료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9 카드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 오류는 온라인에서 397회(12.8%), 오프라인에서 95회(7.8%)로 온라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오류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 이므로 적절한 탐구 주제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그래프에서 ‘띄어쓰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오류 빈도를 보인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탐구 주제이다.

② 자료는 동일한 규범 항목이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오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매체별 오류 양상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적절한 주제이다.

③ ‘문장 부호’ 오류는 두 매체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므로, 그 세부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자료를 심화한 적절한 탐구 주제이다.

⑤ ‘로마자/외래어 표기법’은 두 매체에서 모두 오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자료를 활용한 적절한 탐구 주제이다.

10 **서·논술형** 언어생활 탐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한 후에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필요하다. 가설 설정 직후 수행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단계는 언어 자료 수집으로, 가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특정 관점이나 가치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탐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매체와 사례를 폭넓게 고려하여 탐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가설 설정 이후의 단계로 ‘언어 자료 수집’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
자료 수집 시 유의할 점(다양한 관점과 가치 고려 등)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11 **서·논술형** <보기>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3세 이상~69세 이하 국민 1,025명이며, 이들 중 84.1%가 ‘한글 맞춤법 꼭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국민의 다수가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조사 대상(연령, 인원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그래프의 수치(84.1% 등)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적절히 해석하였다.	☐

⊕ 이해 더하기

도넛형 그래프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형 그래프의 한 종류로, 전체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때 사용한다.

2. 교과와 전문 분야의 언어생활

01. 교과의 언어

탐구 1 역사 교과의 언어

확인 문제

61~65 쪽

- 01 O 02 인과 03 서사적 04 O 05 조직적, 보조
06 한자어 07 (1) X (2) O (3) O

01 역사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에 존재했던 기관, 제도, 서적, 미술품’ 등이다. 이 중 기관, 제도, 서적, 미술품 등은 주로 분류나 나열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

알아두기

역사 교과의 설명 대상과 서술 방법

	설명 대상	서술 방법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서사적 기술
	역사에 존재했던 기관, 제도, 서적, 미술품	분류, 나열 등

02 역사 교과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연결되며 진행되는지 서술어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서사적 담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역사 교과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 교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사건 간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여 개별 사실을 하나의 서사적 맥락으로 연결하는 특징을 지닌다.

04 역사 교과서에서 개념을 설명할 때는 수식 구조나 정의문 구조 등을 사용하며, 특정 시기의 기관이나 제도 등을 설명할 때는 분류 또는 나열의 설명 구조를 사용하기도 한다.

05 도표나 그래프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그림이나 사료는 글로 제시된 서술을 보조하여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06 역사 용어의 많은 부분이 어려운 한자어로 기술되어 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어의 조어적 특징을 활용하면 역사 용어의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알아두기

역사 용어의 이해 방법

- 한자어의 조어적 특징을 활용함.
- 교과서 낱개, 국어사전, 백과사전,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함.

- 07 (1) 낱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역사 교과서를 읽을 때 낱선 어휘나 용어가 나오면 교과서의 낱개에 제시된 뜻풀이를 참고하면 역사 교과의 언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본문의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를 보조하는 자료로, 묘청의 세력 범위와 이동 경로를 자세히 나타낸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본문의 서술을 보조하고 있다.
- (3)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의 변천 과정과 권력 행사 기구가 연도 순서에 따라 도표로 제시되어 있어, 집권자의 변화와 시기별 지배 기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탐구 2 과학 교과의 언어

확인 문제

71~75쪽

- 01 ⑤ 02 O 03 X 04 한자 05 동사, 형용사
06 ② 07 (1) 예시 (2) 사고 도구어

- 01 과학 교과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므로, 내용이 설명적이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주관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
- 02 과학 교과서의 삽화는 글로 설명된 대상의 구조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삽화를 함께 보면 글의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03 과학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개념이 연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핵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 ‘RNA’ 등의 개념을 연속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의 내용은 다른 개념들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04 과학 교과에는 ‘각막’, ‘망막’, ‘맹점’과 같이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용어를 구성하는 한자 각각의 뜻을 파악하면 용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 낱선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05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동작이나 작용은 동사로,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에서는 동작이나 작용에 해당하는 현상을 명사 혹은 명사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 언어와 차이를 보인다.

- 06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 과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찰한 동작·작용이나 상태에 해당하는 현상을 명사 혹은 명사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07 (1) (가)에서는 신맛이 나는 과일, 식초,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산성 물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에 해당한다.
- (2) 사고 도구어는 여러 학문 분야에 쓰이면서 그 학문 분야의 대상을 탐구하는 사고 과정을 나타내 주는 단어를 말한다. (나)에서 ‘관찰하다’, ‘분류하다’, ‘구분하다’ 등이 사고 도구어의 예에 해당한다.

소단원 평가

81~83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④ 09 ① 10 ⑤

11 (가)의 일상 언어에서는 동작이나 작용을 동사로, 상태나 성질을 형용사로 나타낸다. 반면 (나)의 과학 용어에서는 동작이나 작용에 해당하는 현상을 명사 혹은 명사구로 표현하여 현상을 개념화한다. 12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진 문장을 구성하여 임술 농민 봉기라는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01 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연결되며 진행되는지 서술어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답풀이 ① 역사 교과는 역사적 사건과 역사에 존재했던 기관, 제도, 서적, 미술품 등 역사적 사실을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② 역사 교과는 역사를 다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학습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 역사 교과서에서는 도식화, 도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그림이나 사료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서술을 보조한다.

⑤ 역사 교과서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기관, 제도, 서적, 미술품 등을 주로 분류, 나열 등을 통해 설명한다.

- 02 이 글에 쓰인 주요 용어는 ‘무신 정변’, ‘서경 천도 운동’, ‘문무 겸직제’와 같이 역사적 사건이나 제도를 명사 형태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는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역사 용어로, 역사적 진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또 명사화를 통해 역사 용어는 여러 사건과 현상들의 인과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나타낸다.

- 03 ㉠은 조선 시대의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므로 '분류'의 설명 구조에 해당한다. ㉡은 '피지배층인 상민과 지배층인 양반을 엄격히 구분하는'이 '반상제'를 수식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식 구조'에 해당한다. ㉢은 중인의 개념을 '중인은 ~을 일컬었다.'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하므로 '정의문 구조'에 해당한다.

이해 더하기

설명 방법의 종류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분석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분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 설명하는 방법
나열	대상의 특징이나 사례를 차례대로 벌여 놓는 설명 방법
비교	둘 이상의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대조	둘 이상의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정의	대상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설명 방법

- 04 그래프에서 무신 정권 시기인 1170년~1270년 사이에 봉기 발생 건수가 많았으며, 특히 1200년과 1220년 사이에 봉기 발생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신 정권 수립 이후 봉기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설명은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답풀이 ① 그래프의 가로축은 1140년부터 1260년까지 20년 단위로 연도를 표시하고 있다.

② 그래프의 세로축은 0건부터 25건까지 5건 단위로 농민·천민 봉기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③ 막대 상단에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시기의 발생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그래프는 무신 정권이 수립된 1170년 이전인 1140년부터 제시되어 있으며, 당시 2건의 봉기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5 도표나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본문 내용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ㄴ),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도식화, 도표 등을 통해 본문의 핵심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ㄷ). 또한 시각적 정보이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이나 인과 관계를 학습하고 기억하기에 효과적이다(ㄹ).

○답풀이 ㄱ.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나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해 더하기

시각 자료의 유형

- 그래프: 수치나 변화 양상을 선, 막대, 원 등으로 표현함.
- 삽화/사진: 인물, 유물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거나 묘사함.
- 지도: 지리적 공간 위에 역사적 사건이나 통계 데이터를 배치함.
- 도표(표): 복잡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과 열로 분류하여 정리함.

- 06 학생은 역사 교과서 본문의 내용이 '사건의 전개'에 해당함을 파악한 뒤, '이자겸의 막강한 권력 → 인종의 이자겸 공격 → 이자겸과 척준경이 궁궐 불태우고 왕위 다툼. → 금의 군신 관계 요구 수락'과 같이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를 명사나 명사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답풀이 ① 여러 역사적 사건을 대조하여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순서를 파악하고 있다.

②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감상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④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질문을 생성하거나 이를 목록화하는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지식을 별도로 요약하는 활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해 더하기

교과서의 읽기 단계

다음은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읽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계별 읽기 방법이다.

1단계 '개관하기'	소단원 제목과 문단의 제목을 간단히 살펴본다.
↓	
2단계 '질문하기'	소단원 제목과 문단 제목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과 관련한 질문을 만들어 본다.
↓	
3단계 '읽기'	질문에 답을 찾는 마음으로 교과서 내용을 읽는다.
↓	
4단계 '정리하며 이해하기'	찾은 답을 공책에 정리하며 학습의 흐름을 이해한다.
↓	
5단계 '복습하기'	앞서 공책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복습한다.

- 07 (가)에서 다루는 지구의 층상 구조와 (나)에서 다루는 핵산은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설명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과학 교과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탐구하기도 하지만 (가)와 (나)처럼 현실에 존재하지만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을 다루는 경우도 많다.

○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설명적이고 구성 또한 체계적이며 분석적이다.

② (가)의 지구 내부 구조와 (나)의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등은 모두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③ (가)는 지구의 구조를 외부에서 내부의 공간적 순서로, (나)는 핵산의 형성 과정을 구성 요소의 연쇄적 결합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나)는 핵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 RNA 등 여러 개념을 연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08 과학 교과서를 읽을 때는 교과서에 실린 삽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삽화는 글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내용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삽화를 참고하지 않고 대상의 실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답풀이 ① (가)에서는 지구의 구조를 지각-맨틀-외핵-내핵의 순서로, 즉 외부에서 내부의 공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순서를 고려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과학 교과서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낱서 용어가 많이 등장하므로,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며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③, ⑤ 과학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개념이 연쇄적으로 필요하므로, 각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09 (나)에서는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이중 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다.'와 같이 DNA와 RNA를 구조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핵산의 개념을 정의문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답풀이 ② (나)에서 핵산과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양을 직접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③ (나)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세포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나열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으며, 핵산의 기능이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DNA와 RNA의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⑤ (나)에서 당과 인간의 특성을 대조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으며, 인산, 당, 염기가 1:1:1로 결합하여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이해 더하기

설명 방법의 기능과 효과

설명 방법은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독자가 복잡한 지식을 논리적 구조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고 도구이다. '분류'와 '구분'은 방대한 정보를 공통된 속성에 따라 같은 종류끼리 묶음으로써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의 핵심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게 한다. 또한 '예시'와 '비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독자의 경험과 연결하여 구체화하고, '비교'와 '대조'는 대상 간 차이를 드러내어 의미를 분명히 하며 오개념을 방지한다. '정의'는 용어를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과학·역사와 같은 전문 교과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설명 방법이 도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의 시각 자료와 결합하면, 정보 간의 관계와 전체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이해를 돕고 학습의 효율성과 기억의 지속성을 높인다.

10 '분류한다'는 여러 대상을 공통점이 있는 부류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다. '비교한다'는 이미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대상의 공통점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분류한다'를 '비교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② '관찰한다', '분류한다', '구분한다'는 모두 여러 학문 분야에 쓰이면서 그 학문 분야의 대상을 탐구하는 사고 과정을 나타내 주는 사고 도구어이다.

③ '관찰한다'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로, <보기>의 맥락상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과정을 포함한다.

④ '구분한다'는 서로 다른 특징을 구별하여 이름 붙인다는 의미로, 각각의 대상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대조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이해 더하기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

과학 교과서에는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가 함께 사용된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말로,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온 결합'처럼 해당 학문 분야의 고유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반면 사고 도구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두루 사용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이다. '관찰하다', '분류하다', '구분하다', '측정하다', '유의미하다' 등이 그 예로, 학습자들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어휘이다. 사고 도구어는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11 **서·논술형** (가)와 같은 일상 언어에서는 동작이나 작용을 동사로 나타내고 상태나 성질을 형용사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나)와 같은 과학 교과서의 언어에서는 동작이나 작용에 해당하는 현상을 명사 혹은 명사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 과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가)와 (나)의 의미 표현 방식의 차이를 적절하게 썼다.	☐
'명사나 명사구'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12 **서·논술형** <보기>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 중 일부로, 임술 농민 봉기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농민들이 한 행동을 '점령하고', '습격하여', '없애고', '봉기하였고'와 같이 연결 어미로 이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사건이 서로 끊어진 채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서술된다. 또한 진주성 점령과 관아 습격에서 시작하여 삼남 지방의 봉기,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드러나므로,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서술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임술 농민 봉기'와 같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명사로 압축하여 표현했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연결 어미 사용 등 문장의 연결 방식을 파악하여 썼다.	☐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을 썼다.	☐

02. 전문 분야의 언어

탐구 1 식음료 분야의 의사소통

확인 문제

85~92 쪽

- 01 특별한 02 적으며, 많다 03 O 04 O
05 어렵다 06 눈치 07 c 08 ⑤ 09 센서리
10 ③ 11 ⑤ 12 (1) O (2) O 13 X
14 ㉠: 로스팅 ㉡: 그라인딩 ㉢: 블루잉

- 01 전문어는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로,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에서 도구처럼 사용되는 말이다.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과 달리,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개념을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 02 전문어는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므로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으며,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문어는 같은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어를 일반인에게 공유할 때에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거나 적절한 유사어를 함께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아두기

전문어의 개념과 특징

개념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로,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집단에서 도구처럼 사용되는 말
특징	-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으며,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음. - 같은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도움. -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03 커피 산업 분야에는 커피 제조와 관련된 전문 직업으로 로스터와 바리스타 등이 있다. 로스터는 커피콩을 볶는 작업을 관리하는 직업이고, 바리스타는 원두의 특성에 맞게 추출 방식을 결정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게 커피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이 두 직업의 명칭은 현재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문어에 해당한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직업 분야의 전문어는 사회적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일반 어휘로 편입되기도 한다.
- 04 조리 분야에서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문어도 있지만,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분야별로 사용되는 전문어가 나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조리 분야의 자격증이 세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고유한 조리 기술과 재료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전문어가 따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식음료 분야 전문어의 특징

분야	전문어의 특징
커피	- 외국어·외래어 비중이 높음. -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도 있음.
조리	공통 전문어 외에 분야별로 사용하는 전문어가 있음.

- 05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돕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전문어는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06 글쓴이는 남의 마음이나 일의 꾀새를 알아채는 힘을 '눈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눈치가 사람들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눈치'이다.
- 07 융통성이 있다면 자료에 제시된 상황에서 원칙적인 조리법을 내세우기보다 손님의 실제 요구 사항에 주목하여 지시할 것이다. 이 지시에는 '미디엄 레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보다는 고기를 더 익혀 달라는 손님의 실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c)하려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 08 글쓴이는 초보 요리사가 따끔한 잔소리를 들으며 실수투성이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훌륭한 주방장이 되려면 요리사로서 경력을 쌓아야 하며, 스스로 이 일을 왜 배우려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빠른 성과보다 꾸준한 경험 축적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 09 센서리(Sensory)는 커피의 향과 맛을 느끼고 분별하여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로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가리키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커피 관련 일을 잘하고 싶어도 타고난 입맛이나 지내 온 환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언급하며, 커피 추출과 세팅 등을 잘하려면 센서리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10 '적성'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하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 커피 분야에 특수하게 사용되는 전문어로 보기 어렵다. 인터뷰에서 '적성'은 커피 분야의 전문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답풀이 ① '추출'은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커피 분야에서 원두 가루에 물을 부어 커피 성분을 뽑아내는 작업을 가리키는 전문어로 사용된다.
② '로스팅'은 커피콩을 볶아 커피의 향과 맛을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이다.
④ '바디감'은 커피를 마실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나 질감을 나타내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이다.
⑤ '클린 컵'은 부정적인 향미 없이 커피의 향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이다.

11 인터뷰 대상자는 손님들로부터 “브루잉 커피를 한 번도 마셔 보지 않았는데 마셔 보니 너무 괜찮아서 다른 동료에게도 추천했다.”, “커피에서 이런 다채로운 향미가 나는 걸 처음 느낀다.” 등의 긍정적인 후기를 들으며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또, 자신이 느낀 커피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이 바리스타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밝히고 있다.

12 (1) 바리스타는 “생두는 콜롬비아산이고요, 로스팅은 물론 그라인딩도 직접 한 거예요. 특별히 핸드 드립으로 브루잉한 거예요.”와 같이 커피와 관련한 전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바리스타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자신의 작업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 손님은 바리스타가 사용한 ‘로스팅’, ‘그라인딩’, ‘브루잉’ 등의 전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로스팅? 그라인딩? 브루잉?”이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가 해당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을 보여 준다.

13 바리스타는 손님에게 전문어를 일상어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커피콩을 볶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해요.”, “잘 볶은 원두를 갈아요. 이것 그라인딩이라고 해요.”와 같이 먼저 일상적인 표현으로 내용을 설명한 후 전문어를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어를 전문어로 바꾼 것이 아니라 전문어를 일상어로 풀어 설명한 것이다.

➤ 이해 더하기

바리스타와 로스터

커피 산업에서 바리스타와 로스터는 흔히 혼용되지만 엄밀히 다른 직업이다. 바리스타는 원두의 특성에 맞게 추출 방식을 결정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게 커피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커피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한다. 반면 로스터는 생두를 선별하고 볶는 로스팅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업으로, 커피의 향미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두 직업 모두 커피 산업의 전문가이지만 담당하는 단계와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다. 바리스타는 추출 온도, 압력, 시간 등 커피 추출 과정의 물리적 변수를 주로 다루며, 로스터는 원두의 열 전달 과정과 화학적 반응을 이해하여 로스팅을 수행한다. 이처럼 두 직업은 서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 지식과 전문어 체계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로스팅과 추출을 모두 담당하는 전문가도 늘어나고 있어, 커피 분야의 직업 구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14 바리스타는 손님에게 커피 제조 과정을 설명하면서 “커피콩을 볶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해요.”, “잘 볶은 원두를 갈아요. 이것 그라인딩이라고 해요.”, “커피를 추출하는 걸 브루잉이라고 해요.”라고 각 전문어의 의미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직접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 ㉡, ㉢에 들어갈 말은 각각 ‘로스팅’, ‘그라인딩’, ‘브루잉’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문어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는 방식은 전문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알아두기 커피 제조 과정 관련 전문어

- 생두: 가공하기 전의 커피 열매 또는 원료 커피콩
- 로스팅(roasting): 커피콩을 볶는 작업
- 그라인딩(grinding): 볶은 원두를 가는 작업
- 브루잉(brewing): 원두 가루에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는 작업

탐구 2 건축·세무 분야의 의사소통

확인 문제

95~103쪽

- | | | | | |
|---------|----------------------------|------------|------|------|
| 01 높다 | 02 도면 | 03 X | 04 X | 05 ① |
| 06 ㄴ, ㄷ | 07 ③ | 08 플로팅 하우스 | | 09 O |
| 10 O | 11 건축주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 | | |
| 12 미술관 | 13 (1) O (2) X (3) X (4) O | | | 14 O |
| 15 O | 16 ㄱ, ㄴ, ㄷ | | | |

01 건축 분야의 전문어는 일상어와 비교할 때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혼종어의 비중이 높다. 또 건축 분야의 ‘물성’, ‘조형성’은 한자어이고, ‘텍토닉’, ‘플로팅 하우스’, ‘필로티 구조’ 등은 외국어나 혼종어에 해당하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외국의 개념이나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종의 단어들이 혼합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02 건축 분야는 설계 도면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도면은 건축물의 형태, 구조, 치수, 재료 등을 약속된 기호와 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세금 업무는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관련 전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세무 관련 용어에는 한자어가 많은 데다 세무 관련 전문 지식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04 세무 관련 용어는 한자어의 비중이 높지만, 한자의 훈으로만 풀이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많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세’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므로, 한자의 뜻만으로는 실제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무 관련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무 분야의 전문 지식도 함께 필요하다.

한자어의 비중이 높으나, 한자의 훈으로만 풀이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많음.



세무 관련 전문 지식과 함께 이해해야 함.

- 05 이 만화는 건축가 유현준이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기 위해 준비하던 중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건축주와 소통하며 집을 설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인 건축가와 설계 사무소 직원은 모두 건축 분야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 06 건축주는 ‘물 위에 집을 짓지는 않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느낌(ㄷ)을 주면서 자연이 서로 어우러지는 집(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물 위에 실제로 지어지는 것(ㄱ)은 건축주의 요구와 다르며, 강물 소음을 차단하는 것(ㄹ)은 이 만화에 서 언급되지 않는다.
- 07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집 안 어느 방향에서든 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 보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인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어 대신 쉬운 표현을 사용해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 08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는 바다에 띄워서 지어 놓은 주택을 의미하는 건축 분야의 전문어로, 외국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만화에서 설계 사무소 직원은 건축주가 원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의 집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플로팅 하우스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 09 이 만화에서 건축가와 설계 사무소 직원은 ‘플로팅 하우스’, ‘필로티 구조’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분야 전문가끼리 전문어를 사용하면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이해 더하기

전문어의 기능

- 의미의 정확성: 전문적인 개념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 의사소통의 효율성: 복잡한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음.
- 전문성 강화: 같은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함.
- 정보 전달의 통일성: 용어의 의미를 일정하게 공유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10 설계자는 건축주가 원하는, 강 위에 떠 있는 느낌을 필로티 구조를 통해 구현하고, 옥상 정원으로 향하는 계단은 자연과 건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늘이 보이도록 설계하는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하였다.
- 11 마지막 장면에 ‘건축은 설계자의 주관만으로 만들기보다는 건축주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건축이 설계자 혼자만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건축주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12 안도 다다오는 나오시마라는 섬을 미술관 섬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뢰를 후쿠타케 사장으로부터 받았다. 후쿠타케 사장은 일반적이지 않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현대 미술관을 만들어 나오시마를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 섬으로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었다.
- 13 (1) 안도 다다오는 나오시마의 환경을 지키는 미술관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미술관의 모든 것을 지하에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지주 미술관에는 조명이 없고 지하에는 자연광만 들어오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
- (2) 지주 미술관에는 조명이 없어 지하에는 자연광만 들어온다. 이 때문에 해가 지는 네 시경이면 작품을 감상하기 힘들어지며, 일반 미술관처럼 늦게까지 감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3) 지주 미술관은 일반 미술관과 달리 전시 작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후쿠타케 사장은 작품이 바뀌지 않아도 관람객이 좋아했다면 다시 미술관에 올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에 따른 자연광의 변화로 작품이 다르게 보이는 것 자체가 지주 미술관의 특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4) 안도 다다오는 처음에는 나오시마 섬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 섬이 될 수 있겠냐며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후쿠타케 사장이 성공할 수 있다며 강하게 의지를 피력하였고, 결국 지주 미술관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미술관으로 완성되었다. 안도 다다오는 지주 미술관을 이렇게 만든 것은 후쿠타케 사장의 힘이 컸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 14 안도 다다오는 지주 미술관을 지을 때 후쿠타케 사장 외에 함께한 사람들과 서로 부딪치기도 하며 생각을 주고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건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건축물은 이러한 소통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 이해 더하기

건축주와 설계자의 소통

건축주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전문어 없이 ‘따뜻한 느낌’, ‘자연과 어우러지는 집’처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자의 역할은 이러한 표현 속에 담긴 건축주의 실제 요구와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구체적인 설계 언어로 구현하는 것이다. 같은 표현도 건축주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성된 건물이 건축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은 건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 15 세무 분야는 전문 용어도 많고 내용도 낯설어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세무사도 매번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재차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일반인들은 당연히 잘 모르는 분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 분야의 언어가 관련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16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라는 세무사의 말에서, 그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켜야죠.”라는 세무사의 말에서, 그는 “그 말 속에 있는 요구 사항이나 뉘앙스를 재빨리 파악하는 게 더 필요해요.”라는 세무사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ㄹ. 이 자료에서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자세로 제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문 용어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109~112쪽

- 01 ④ 02 ①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② 12 ⑤ 13 막내 요리사는 선배 요리사의

못마땅한 눈빛을 알아채지 못하고 굼뜨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방에서는 말이 없어도 상대방의 눈빛이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눈치가 중요하므로, 선배 요리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업 속도를 높이거나 잘못된 점을 확인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14 세무 분야에서 다루는 업무나 세금의 종류 자체가 특수하고 전문적이어서 이를 더 쉬운 일반 용어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정밀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01 전문어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에서 도구처럼 사용되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전문어는 학술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 어휘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② 전문어는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다. 따라서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적다.

③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⑤ 전문어는 전문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이해 더하기

쉬운 언어 운동과 공공 언어

전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공공 기관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문서와 안내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법과 지침으로 규정하는 ‘쉬운 언어(Plain Language)’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령과 행정 문서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공공 언어 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무, 법률, 의료 등 일반 시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일수록 전문어를 쉽게 풀어 전달하려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02 인터뷰 내용에는 ‘스페셜티 커피’, ‘에스프레소’, ‘로부스타’, ‘바디감’과 같은 전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과 인터뷰 대상자 모두 이 용어들의 구체적인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서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답풀이] ②, ③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현황이라는 커피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스페셜티 커피’, ‘로부스타’, ‘바디감’ 등 여러 전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스페셜티 커피’는 단순한 하나의 음료를 넘어 산지, 풍미, 품질 점수 등에 따른 등급을 나타내는 커피 분야의 전문어이다.

④ ‘스페셜티 커피’는 품질을 중시하는 커피 시장의 흐름을, ‘로부스타’는 이탈리아인들이 선호하는 커피의 특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⑤ ‘바디감’은 영어(Body)와 한자어(感)가 결합한 형태의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이처럼 국어, 한자어, 외래어가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기 상대에 따른 효과적인 언어 사용

대상	언어 사용 방식
전문가	전문어를 활용하여 의미를 정밀하게 전달하고 소통의 효율성을 높임.
일반인	전문어를 쉬운 일상어로 풀어서 설명하며, 상대방의 이해 정도와 질문 의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통함.

03 (가)~(다)에는 ‘미디엄 레어’, ‘바디감’, ‘로스팅’, ‘브루잉’ 등 조리과 커피 분야의 다양한 전문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은 스테이크의 조리 방식이나 커피의 맛의 특징, 원두를 볶는 작업 또는 추출 과정을 정밀하게 나타내는 식음료 분야의 용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풀이] ① ‘미디엄 레어’, ‘로스팅’ 등의 전문어는 개인의 느낌이나 감상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조리 상태나 작업 과정과 같은 전문적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② 전문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도구처럼 사용되는 말로, 집단 내에서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어는 친근함이나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③ 전문어는 분위기나 인상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나 개념의 의미를 정밀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지, 일반인의 이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표현은 아니다.

04 (가)에서 융통성 있는 총주방장이라면 손님이 ‘미디엄 레어로 좀 더 구워 달라’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손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시 고기를 구우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①은 손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대응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② 손님 요구보다 자신의 기준을 우선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 ③ 손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 ④ 손님 요구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 ⑤ 손님 의도보다 조리법의 정확성을 우선하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융통성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05 (나)의 ‘타고난 입맛, 지내 온 환경 등으로 인해 센서리에 취약해서였다.’, ‘커피 맛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는 부분에서 ㉠의 ‘센서리’는 커피의 향과 맛의 차이를 느끼고 구별하는 감각 능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커피 관련 전문어

- 센서리(Sensory): 커피의 향과 맛을 느끼고 분별하여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로 구별할 수 있는 감각
- 클린 컵(Clean Cup): 커피를 마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향미들이 없으며, 커피의 향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 브루잉 커피(Brewing Coffee): 커피 가루에 물을 부어 필터로 걸러 만든 커피로, 대표적으로 핸드드립 커피가 있음. 커피 머신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스프레소와는 추출 방식에서 구별됨.

06 바리스타는 ‘로스팅’, ‘그라인딩’과 같은 전문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커피콩을 볶는 것’, ‘원두를 가는 것’처럼 쉬운 일상적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어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바리스타는 상대방에게 전문어의 의미를 되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어의 뜻을 직접 설명해 주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바리스타의 목적은 상대방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다.
- ④ 바리스타는 전문어의 어원이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용어가 가리키는 작업 과정과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이해 더하기

전문어와 언어 공동체

언어는 같은 집단 안에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언어학에서는 공통된 언어 규범과 어휘를 공유하는 집단을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라고 부른다. 전문어는 특정 직업이나 학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전문적 언어 공동체의 산물이다. 같은 분야 종사자들은 전문어를 통해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가 낯설고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전문가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특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전문어가 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07 건축 분야에서는 말뿐 아니라 설계 도면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ㄱ). 또한 복잡한 개념과 공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활용하며(ㄷ), 이러한 용어에는 한자어·외래어·외국어·혼종어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ㄹ).

○**오답풀이** ㄴ. 전문어는 의미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ㄴ. 건축 분야의 의사소통은 정확성과 전문성을 중시한다.

알아두기 건축 분야 전문어와 의사소통의 특징

건축 분야의 전문어	일상어와 비교할 때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혼종어의 비중이 높음.
건축 분야의 의사소통	설계 도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 → 설계와 시공의 의사소통에서 도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08 (가)에서 건축가는 건축이 설계자의 주관만으로 만들기보다는 건축주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도 지주 미술관을 건축주인 후쿠타케 사장, 그리고 함께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완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건축이 건축가 혼자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②, ③ (가)와 (나) 모두 건축주 등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건축주는 건축가와 소통하며 함께 집을 완성하고 있으므로, 권한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한쪽이 완전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가)의 건축가는 일반인인 건축주에게 쉬운 일상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소통 방식이다. 반면 <보기>의 건축가는 직원에게 ‘필로티 구조’와 같은 전문어를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해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건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건축가와 일반인인 건축주가 소통하는 상황이다.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와 자신의 설계에 대해 설명하는 건축가의 관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는 건축 분야 전문가인 설계 사무소 직원과 건축가가 ‘필로티 하우스’, ‘필로티 구조’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소통하는 상황이다.

③ (가)에서 건축가는 ‘집의 어느 방향에서나 강과 풍경을 볼 수 있고’와 같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건축가는 ‘필로티 구조’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 사무소 직원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10 글쓴이는 작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후쿠타케 사장의 생각에 공감하며, 그의 철학이 공간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① 글쓰이는 후쿠타케 사장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

② 글쓰이는 사장의 말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틀에 맞춰 바꾸기보다, 사장이 의도한 '영원성'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③ 다른 사례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글쓰이는 후쿠타케 사장의 생각에 공감하며 이를 받아들인다.

⑤ 글쓰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공감과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드러낸다.

11 진행자는 세무 분야에 전문 용어가 많고 내용도 낯설어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12 세무사는 일반인들이 세무 분야를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켜야죠.”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무사의 일”이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 ‘세무사의 일’이란 전문 지식이 없는 의뢰인에게 어려운 세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3 **서·논술형** <보기 1>에 따르면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의 감사를 빠르게 알아채는 힘으로, 사람 사이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기 2>에서 막내 요리사는 자신의 굼뜬 행동에 화가 난 선배 요리사가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고 있음에도 천천히 행동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주방처럼 빠른 협업과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한 공간에서는 말이 없어도 상대방의 표정·눈빛·분위기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막내 요리사는 선배 요리사의 눈빛에 담긴 의도를 읽고 작업 속도를 높이거나 자신의 행동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시 확인하며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막내 요리사가 상대방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혀 썼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작업 속도를 높이거나 행동을 바로잡기 등)을 포함하여 썼다.	☐

14 **서·논술형** <보기>에서 ‘양도 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긴 설명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이처럼 세무 분야에서 다루는 대상은 그 성격 자체가 특수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어렵고, 풀어 서술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오히려 불명확해지거나 비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세무 분야에서는 개념을 정밀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도 이를 별도로 학습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세무 분야 업무의 특성과 관련지어 전문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3. 나와 우리의 언어생활

01. 정체성을 이루는 언어

탐구 1 나를 드러내는 언어

확인 문제

121~126쪽

- 01 O 02 X 03 O 04 정체성 05 (1) O
(2) X 06 내가 누군지 정의하는 그 ‘다시 쓰기’
07 L 08 부사 09 (1) O (2) X (3) X

01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다. 즉,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가 정체성이다.

02 정체성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정체성은 언어적 표현은 물론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 소유물이나 복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언어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04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은 다양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모두 선택하지는 않는다. 여러 표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언어 표현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언어 표현의 선택 자체가 곧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행위가 된다.

05 (1) 이 자료는 글쓰이가 교통사고를 겪은 경험과 사고 이후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풀어 낸 에세이이다.

(2) 글쓰이는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자신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규정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다. 죄책감이 아니라, 피해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능동적 의지에서 비롯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알아두기

‘사고를 당하다’와 ‘사고와 만나다’

	사고를 당하다	사고와 만나다
유형	피동 표현	능동 표현
반의 관계	사고를 내다	사고와 헤어지다
정체성	사고의 피해자로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	사고와 헤어질 준비가 된 능동적인 사람

06 글쓴이는 회복을 넘어 다시 성장으로 가기 위해 자신이 누군지 정의하는 그 '다시 쓰기'를 함으로써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07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고를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와 거리를 두고 헤어진 능동적인 삶의 태도(ㄱ)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자신을 재규정한 정체성(ㄷ)을 함축하고 있다.

오답풀이 ㄴ.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글쓴이가 교통사고 이후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글쓴이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언급되지 않는다.

08 이 자료에서는 '실제로 훌륭한 문장가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부사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부사가 있으면 문장의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말의 진실함과 긴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진실함과 긴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 09 (1) 글쓴이는 '부사는 세계를 우아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흥미롭고 맛깔나게 해 준다.'라고 하며 부사가 지닌 긍정적 표현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 (2) 글쓴이는 어떤 작가의 '부사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만일 지옥의 특징 중 하나가 '지루함'이라면 그것은 반만 맞는 표현일지 모르나마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3) 글쓴이는 '제일', '가장' 등의 부사를 사용하면 진실한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든다며, 종종 이러한 부사를 쓴다고 하였다. 또 '나는 거짓말을 쓰되 그것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고심하다 겨우 부사 몇 개를 지운다.'라고 하며, 소설을 쓸 때에도 부사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설을 쓸 때 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탐구 2 우리를 드러내는 언어

확인문제

132~137쪽

- | | | | |
|-----------------|--------|----------------------|------|
| 01 언어 공동체 | 02 X | 03 O | 04 ⑤ |
| 05 O | 06 신조어 | 07 (1) O (2) X (3) O | |
| 08 말을 잘 다듬어 쓰자. | 09 O | 10 언어 의식 | |
| 11 O | 12 표준어 | 13 ⑤ | 14 ① |

01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적 특징을 보이는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언어 공동체는 국가나 민족, 직업, 출생 및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세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02 언어적 정체성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서 자란 사람이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방언을 고수할 것인지 표준어를 사용하기를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선택 자체가 언어적 정체성의 실현에 해당한다.

03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높임 표현을 섬세하게 선택하거나 대화에서 청자 중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언어적 정체성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언어 공동체와 언어 정체성

언어 공동체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적 특징을 보이는 집단
--------	------------------------------



언어 정체성은 어떤 언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다르게 실현됨.

04 뉴스 진행자는 최근 학생들이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몰라 발생한 논란을 언급한 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계속 변해 가는 언어, 우리가 모색해야 할 지혜로운 언어 소통법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세대 간 어휘 사용과 이해의 차이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5 취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무료하다'를 '무료(無料, 공짜)'로, '심심한 사과'를 '부족한 사과'로 이해하였다. 이는 '무료(無聊)'와 '심심하다(甚深하다)' 같은 한자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한자어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6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는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처럼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신조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이러한 신조어 사용은 그들만의 또래 의식과 새로운 것을 동경하는 언어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 07 (1) 이 자료는 "비난보다는 관심, 외면보다는 경청. 중요한 건 세대 간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일 겁니다."라는 기자의 말로 마무리되고 있다.
- (2) 기성세대는 표준어 뜻풀이는 막힘없이 답하지만 '알잘딱깔센'과 같은 신조어 앞에서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조어를 배우려 애쓰는 성인들이 있을 정도로, 기성세대에게 신조어는 소통의 장벽이 된다.
- (3) 전문가는 신조어의 사용이 젊은 세대의 또래 의식을 반영하고, 새로운 것을 동경하며 이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8 이 자료는 1900년의 신문 기사에 실린 논설로, 원제목인 ‘언어 가정(言語可整)’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말을 잘 다듬어 쓰자.’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다만 말을 잘 다듬어 쓰자는 논설의 의도가 표준어를 쓰자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알아두기 「언어가정(言語可整)」

출처	1900년 10월 9일 자 『황성신문』
특징	- 전국 8도 방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상을 밝힘. - 방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음. - 방언 차를 각 지역의 풍토 차에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임.

- 09 논설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8도 방언의 말씨가 각각 새초롬함, 순박함, 씩씩함, 정중함, 맛깔스러움, 재치 있음, 강인함, 묵직함 등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00년대 당시 전국 8도의 방언이 지역마다 다른 특징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0 특정 언어나 방언에 대해 갖게 되는 느낌이나 심리적 상태를 포괄하여 ‘언어 의식’ 또는 ‘언어 태도’라 한다. 이 자료에 제시된 논설은 전국 각 방언에 대한 당시 한국인들의 언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알아두기 언어 의식(언어 태도)의 개념과 특징

개념	특정 언어나 방언에 대해 갖게 되는 느낌이나 심리적 상태
특징	개인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큼. → 한 언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도 언어 의식(언어 태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 11 이 자료에 제시된 논설에서는 방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곳저곳에 상존하는 방언 차를 각 지역의 풍토 차에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 12 이 자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표준어가 차츰 자리를 잡아 가면서 사투리(나아가 지방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사회 표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조차 사투리를 ‘틀린 것’이나 ‘야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견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 13 음반의 첫 부분에서 음성 지도자 정인섭은 사투리를 (표준말의) 흥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로 들고, 표준말을 ‘똑바른 소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언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투리를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풀이) ① 지방마다 다른 사투리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아서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② ‘아부지’, ‘어무니’, ‘학교’를 (표준말의) 흥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로 들며 사투리를 잘못된 말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사투리를 들려준 뒤 ‘똑바른 소리’인 ‘아부지’, ‘어머니’, ‘학교’를 제시하여 교정하려 하고 있다.
- ④ “이래서야 쓰겠습니까?”라는 반어적 질문을 사용하여 사투리 사용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14 글쓴이는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투리를 ‘잘못’으로 보는 교육자의 시각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이는 사투리를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교정하려 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소단원 평가

143~147 쪽

-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부사를 변호했다. 06 ② 07 ⑤ 08 ③

09 ‘만났다’와 ‘오늘살이 이지선’이라는 두 표현에 글쓴이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만났다’는 사고에 종속된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와 능동적으로 마주하고 헤아릴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오늘살이 이지선’은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10 <보기>의 ‘나’는 감정을 섬세하고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진짜’, ‘정말’, ‘엄청’, ‘많이’와 같은 부사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강조하는 ④의 표현 방식이 ‘나’에게 적합하다. 11 ⑤ 12 ②

13 ⑤ 14 <보기 2>에서는 ‘아부지’, ‘어무니’, ‘학교’와 같은 사투리를 ‘흥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로 제시하고 표준말을 ‘똑바른 소리’로 규정함으로써, 방언을 교정해야 할 잘못된 언어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보기 1>의 화자는 ‘어머’이라는 제주 방언이 표준어 ‘어머니’로는 전달할 수 없는 고유한 정서와 생명력을 지닌다고 보며, 방언을 소중한 언어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 01 (가)에서 정체성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형성되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나)에서 정체성은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소유물이나 복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나)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 ④ (가)에서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 ⑤ (가)에서 자신이 타인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알아두기

정체성의 개념과 특징

개념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
특징	•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타인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음. •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것임.

- 02 [A]에서는 연극 동아리 부원 모집 공고문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간결한 정보 전달을 중시하는 사람은 명사형 어미로,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수식어와 하십시오체로 문장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상황에서도 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현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공고문이라는 공적인 글쓰기 상황을 예로 들어 작성자의 정체성이 언어 표현에 반영됨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공적인 글의 정체성 반영 여부는 알 수 있으나 그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②, ④ [A]에서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방식과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대등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언어 형식이 정체성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거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간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선택이므로, 수식어가 적게 사용된 문장에도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은 드러난다.

- 03 (다)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은 다양하며, 그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언어 표현을 선택한다. 따라서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선택 가능한 표현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 중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사실 및 문제 해결을, 학생 3은 감정 및 공감을 우선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평소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학생 2는 페인트 독성이 더 유해할 것 같다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를 둔 논리적 판단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정체성을 보여 준다.

④ 학생 3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고 속상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감정적 공감을 중시하는 정체성이 드러난다.

⑤ (다)에서 언어 표현 방식은 각자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04 (가)의 글쓴이는 '사고를 당하다' 대신 '사고와 만나다', '사고와 헤어지다'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 생존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나)의 글쓴이는 부사를 쓰는 것에 대한 고민과 애착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현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준다. 두 자료 모두 특정 언어 표현의 선택을 통해 글쓴이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도 글쓴이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고와 만나다', '사고와 헤어지다'라는 표현의 선택은 능동적 생존자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다.

② (나)는 부사 사용에 대한 글쓴이의 지속적인 성찰을 드러낼 뿐,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가)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③ (가)에서 글쓴이는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⑤ (나)는 부사 사용을 통한 정체성 실현을 보여 주지만, 언어 사용과 정체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이해 더하기

언어와 정체성의 상호 구성

언어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언어 자체가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과 사회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사회언어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정체성이 말과 행동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정체성은 먼저 존재하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 05 (나)의 글쓴이는 훌륭한 문장가들이 부사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부사는 세계를 우아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흥미롭고 맛깔나게 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가리켜 글의 마지막에 "부사를 변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부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훌륭한 문장가	(나)의 글쓴이
• 부사는 문장의 격, 말의 진실함과 긴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 문장을 쓸 때 부사 사용을 경계함.	• 부사는 과장되고 무능하지만, 세계를 흥미롭고 맛깔나게 해 줌. • 문장을 쓸 때 부사 사용을 좋아함.

- 06 ㉠ '사고를 당했다.'는 피동 표현으로, 글쓴이가 사고의 피해 대상이 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글쓴이가 나중에 선택한 '사고와 만나다'가 능동 표현인 것과 달리, ㉠은 수동성을 띠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 ㉠은 사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삶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능동적인 삶의 태도는 '사고와 만나다', '사고와 헤어지다'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난다.

㉢. 글쓴이는 ㉠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사고와 헤어졌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07 ㉠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는 글쓴이가 사고 이후

시간 동안 조금씩 흘러보내듯 헤어지고, 매일 오늘을 살아온 과정을 요약한 표현이다. 이는 과거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낸다.

○답풀이 ① 글쓴이는 고통을 체념하며 상황을 수동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능동적으로 거리를 두고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능동적 태도를 보인다.

② 글쓴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았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가해자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③ 글쓴이는 사고를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힌 일처럼 여기고 툭툭 털고 지나쳐 왔다고 인식할 뿐, 교훈을 되새기거나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글쓴이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08 ⑥는 용건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성과 간결성을 중시하는 정체성이 반영된 표현이다. ⑥는 ④에 비해 인사말이나 감사 표현 등은 과감하게 생략했지만, ‘김밥을 대리님’이라며 상대의 호칭을 생략하지 않았다.

○답풀이 ① ③의 부수적인 인사치레를 건너내고 ‘회의 자료 15분 준비’라는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② ③의 인사말, 안부, 감사 관련 표현이 ⑥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④ ⑥에 비해 수식어나 완곡한 어법을 생략하여 상대가 핵심을 즉각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⑤ ③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완곡한 요청을 “~해 주세요.”로 바꿔 핵심 용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

09 **서·논술형** <보기>에서는 ‘사고를 당했다’ 대신 ‘만났다’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사고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사고와 능동적으로 마주하고 결국 헤어질 수 있는 주체로 자신을 재규정하고 있다. ‘오늘살이 이지선’은 ‘하루살이’라는 기존 표현에서 ‘하루’ 대신 ‘오늘’을 넣어 만든 창의적 표현으로, 삶의 길이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이 두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언어로 실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체성이 드러나는 표현 두 개(‘만났다’, ‘오늘살이(이지선)’)를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
각 표현에 담긴 정체성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10 **서·논술형** <보기>의 ‘나’는 섬세하고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다. ㉠는 부사어 없이 ‘사랑해요’라는 표현만으로 감정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반면, ㉡는 ‘진짜’, ‘정말’, ‘엄청’, ‘많이’라는 네 개의 부사어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나’에게는 부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 언어 표현 방식이 적합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부사어 사용 측면에서 ㉡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
<보기>에 나타난 언어적 정체성과 관련지어 이유를 제시하였다.	☐

11 (가)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세대 요인에 의해 신조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거주 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의해 방언이라는 언어적 특성을 공유하는 언어 공동체가 성립됨을 보여 준다. 즉 (가)와 (나) 모두 세대,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언어적 정체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답풀이 ① (가)에서 연령과 세대가 언어 공동체 성립의 요인임이 드러난다.

②, ③ (나)에서 언어 태도는 개인차가 무척 커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④ (가)와 (나)에서 언어 공동체는 연령, 세대, 거주 지역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성립됨을 보여 준다.

➤ 이해 더하기

언어와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청소년 세대가 새롭고 독특한 신조어를 통해 또래 집단 내 유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은 연령과 세대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며, 특정 지역의 방언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현상은 거주지와 같은 지리적 요인이 언어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이처럼 개인의 언어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언어 선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12 (가)에서는 청소년이 신조어에 능숙하고 기성세대가 표준어에 능숙하다는 내용은 다루지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누가 더 외래어 사용에 능숙한지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답풀이 ① ‘한자어는 다소 헛갈려했지만’이라는 기자의 말을 통해 청소년들은 한자어의 의미를 비교적 잘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③ 청소년은 신조어인 ‘알잘딱깔센’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지만, 기성세대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비되어 있다.

④ 청소년은 신조어를 중심으로, 기성세대는 표준어와 한자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각기 다른 언어 정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표준어 뜻풀이는 막힘이 없었는데’라는 기자의 말을 통해 기성세대는 청소년층에 비해 표준어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나)에서 언어 의식은 개인차가 무척 커서 구성원 모두가 공감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나’가 경상도 방언에 정겨움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언어 태도이며, 이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지닌 언어 인식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처음에 경상도 방언 사용자에게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졌다가 함께 지내면서 그 말투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고 정겨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경상도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와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경상도 방언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졌다가 나중에 정겨움을 느끼게 된 반면, 표준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처럼 방언과 표준어에 대해 '나'가 가지는 심리적 상태는 각각 다르다.

③ '나'는 경상도 방언의 강한 억양이 그 지역의 환경과 특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특징임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나)에서 방언 차를 각 지역의 풍토 차에서 비롯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과도 일치한다.

④ (나)에서 특정 언어나 방언에 대해 갖게 되는 느낌이나 심리적 상태를 언어 태도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나'가 경상도 방언 사용자를 보고 '무뚝뚝하고 거친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경상도 방언에 대해 갖게 된 심리적 상태로, 언어 태도에 해당한다.

➤ 이해 더하기

방언의 언어적 위상

방언을 표준어에 비해 결여되거나 부족한 말로 보는 시각은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이다. 방언은 그 사용자끼리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독립적인 언어 체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고도의 사고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다. 표준어가 방언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표준어가 언어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말을 바탕으로 제정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어학적 근거를 갖춘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 14 서·논술형** <보기 1>에서 화자는 “어멍이라는 말의 방울을 달면 / 돌담을 넘어, 올레를 달려, 바람을 건너 / 물속 아득히 물질하는 어머니에게까지 찾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멍’이라는 제주 방언을 깊고 넓은 정서적 울림을 담은 말로 바라보며, 방언의 고유한 언어적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이다. 반면 <보기 2>에서는 표준말을 ‘뚝바른 소리’로, 사투리를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로 규정하며 “이래서야 쓰겠습니까?”라는 반어적 질문을 통해 방언 사용을 문제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방언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 시각으로, <보기 1>과 정반대의 태도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 1>과 <보기 2>에 나타난 방언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보기 1>과 <보기 2>의 구체적 표현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하였다.	☐

➤ 이해 더하기

반어적 질문

표면적으로는 질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표현 방식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반대되는 내용을 질문으로 제시함으로써 비판이나 강조의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02. 관계를 만드는 언어

탐구 1 문법에 담긴 관계

확인 문제

149~156 쪽

01 O	02 X	03 종결	04 ⑤	05 (1) X
(2) X	06 ①	07 ③	08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청년	09 (1) 높임 표현 (2) 공적인
10 L	11 (1) O (2) X	12 ①	13 해라체	14 ②
15 ③				

01 언어의 대인 관계적 기능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조정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인간은 평생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요청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상대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02 ‘친구 사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친구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상대방의 친구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역할을 규정하는 일임을 보여 준다.

03 관계 형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문법 요소로는 종결 표현, 높임 표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종결 표현에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으며, 둘 사이의 역할과 관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이해 더하기

화자의 의도와 문장 유형의 관계

의도	문장 유형	예문
정보 전달	평서문	너는 지금 공부를 한다.
정보 요청	의문문	너 지금 공부를 하니?
행동 강요	명령문	너도 얼른 공부를 해라.
제안	청유문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자.
감탄/느낌 표현	감탄문	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화자의 의도와 문장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간접 화행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화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종결 표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데, 이는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통의 효과를 높이려는 대인 관계적 기능과도 관련된다.

04 상대 높임의 등급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담화 상황이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격식을 갖추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대에게는 상대 높임의 등급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또는 담화에 등장하는 주체·객체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문법 요소이다.

②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관여한다.

③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이 문장의 주어(주체), 목적어나 부사어(객체), 듣는 이(상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④ 높임 표현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05 (1) 장그레가 첫 출근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장그레의 질문에 김동식은 “저쪽, 저쪽!”, “한 장씩.”과 같이 최소한의 답변만 할 뿐,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06 ㉠은 장그레를 향한 비꼬는 발언으로, 장그레에 대한 김동식의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다.

07 김동식은 천 과장이 원래 영업 3팀에 있었다고 언급하며, 천 과장은 경력직으로 온 첫 부서였고 자신은 악덕 상사 밑에서 시달리다가 와서 서로 많이 의지했다고 말한다. 또한 오 차장 밑에서 함께 힘을 합쳐 일했던 좋은 추억이 많다고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김동식과 천관웅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8 <보기>에서 설명하는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법’은 반어법에 해당한다. 김동식은 장그레를 보며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장그레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으로서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장그레에 대한 못마땅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9 (1) 오상식이 천관웅에게 “말투가 왜 그래? 새삼스레. 이상해졌어.”라고 말한 것은, 과거 친밀했던 사이임에도 천관웅이 “차장님,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격식을 갖춘 하십시오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회한 상황에서 변화된 관계의 양상을 높임의 등급으로 드러낸 것이다.

(2) 상대에 따라 높임의 등급을 달리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 간의 최소 관계나 사회적 지위 등 서로의 역할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천관웅이 사적인 친분을 드러내기보다 직장 상사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춘 것은 공적인 상황과 역할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0 ㉠은 장그레가 천 과장에게 처음 인사하며 건넨 말로, 상대 높임 중 가장 격식을 갖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적인 업무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와 정중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므로, ‘주로 친근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습니까’, ‘입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격식을 갖춘 높임 표현이다.

㉢. 신입 사원으로서 상급자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하며 예의를 갖추어 건네는 인사 표현이다.

11 (1) “김영수 또 만났네. 어떻게 등교 시간마다 만나지?”, “지난 번에 나 싫다고 한 거 후회하는 건가?”라는 임휘의 말을 통해 임휘와 김영수는 이전에도 서로 마주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임휘는 김영수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말을 걸고 있지만, 김영수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김영수는 임휘의 말에 “어휴.”, “그래서?”와 같이 단답형으로 응대하거나, “너 2학년 아니야?”라고 하며 임휘가 자신보다 학년이 낮은 후배임에도 반말을 쓰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다. 또한, “나 싫다고 한 거 후회하는 건가?”라는 임휘의 질문에 “아니, 후회는 안 해.”라고 답하며 김영수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두기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이 자료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언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준다. 후배인 임휘가 선배인 김영수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전략적 선택으로, 김영수와 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김영수는 임휘의 반말에 처음에는 해체로 응대하다가, 임휘가 반말 사용을 정당화하자 갑자기 격식체인 해라체로 전환한다. 이는 임휘와의 심리적 거리를 벌리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12 이 자료에서 김영수는 “난 3학년이거든.”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학년을 밝힌다. 이어 “네가 지금 나한테 반말하고 있잖아.”라고 지적하는 것은, 후배인 임휘가 선배에게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상황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김영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휘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위계를 무시하는 언어 표현인 반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김영수는 임휘의 반말에 대해 “난 거절을 좋아해서 널 거절한다.”, “앞으로 나 졸업할 때까지 말 걸지 마라.”라고 말하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공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소설과 시의 차이를 모른다는 점은 임휘의 지식 수준에 대한 지적일 뿐, 반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④ 임휘가 반말을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은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김영수의 부정적인 반응은 솔직함 때문이 아니라 2학년인 임휘가 3학년인 자신에게 낮춤말을 사용하는 무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임휘가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지 못하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김영수가 문제 삼은 것은 표현 구분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한 점이다.

13 김영수는 자신에게 반말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임휘에게 거부감을 느끼며 의도적으로 심리적 거리를 둔다. 특히 소설과 시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다’, ‘-이다’와 같은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갖춘 딱딱한 문체를 사용해 정서적 거리를 두고 공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알아두기 상대 높임의 기능

국어의 상대 높임은 단순히 나이나 지위에 따른 높낮이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주로 상대방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낼 때 사용함.
격식체 (하십시오체, 해라체 등)	주로 공적인 상황이거나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함.

14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협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명령조의 말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자율성이 침해되었다고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유발한다.

15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명령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의문문이나 완곡한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부탁이나 권유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은 평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명령조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예로 보기 어렵다.

○답풀이 ①, ④ “~드릴까요?”,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 형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동시에 직접적인 명령을 피하고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정중한 부탁·권유의 표현이다.

② “~부탁드려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⑤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의 조건문과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탐구 2 호칭어와 지칭어에 담긴 관계

확인 문제

162~171 쪽

01 O	02 X	03 약해진다	04 우리	05 ②
06 O	07 X	08 ②	09 (1) O (2) O	
10 이름, 욕설	11 O	12 X	13 형님	
14 ④	15 ㉠: 삼촌 ㉡: 고모	16 O	17 ⑤	
18 직함	19 (1) O (2) X	20 우리	21 ⑤	

01 호칭어는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로, 관계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선생님’, ‘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02 지칭어는 어떤 대상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분’, ‘너’, ‘우리 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알아두기 호칭어와 지칭어의 구분

호칭어	대상을 직접 부르는 말 예 “할아버지, 과일 드세요.”
지칭어	대상을 가리켜 말하는 말 예 “우리 할아버지는 참 꼼꼼하셔.”

국어에서는 동일한 인물이라도 내가 직접 부를 때(호칭)와 남에게 그 사람을 말할 때(지칭)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화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03 호칭어와 지칭어는 가정, 학교, 사회 등 집단 내의 지위나 친소 관계를 나타내며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선배님’과 같은 호칭은 집단 내의 지위 관계를 뚜렷이 드러내지만, ‘언니’, ‘오빠’, ‘형’, ‘누나’와 같은 가족 공동체적 호칭은 공적인 지위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대신 친밀감을 강조한다. 따라서 ‘선배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언니’나 ‘오빠’,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게 되면, 집단 내의 지위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다소 약해지고 친밀한 관계로 느끼게 된다.

04 <보기>는 말하는 이가 자신을 포함하여 듣는 이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지칭하는 표현을 의미하며, 일인칭 대명사 ‘우리’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05 ㉠에서 ‘우리 엄마’의 ‘우리’는 복수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우리 엄마’에서 ‘우리’라는 말은 지칭어로서 단순히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을 넘어,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답풀이 ①, ④ ‘우리’는 공식적 관계나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적 친밀감인 사회적 소속감·연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③, ⑤ ‘우리’는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도 사용하므로, ‘우리 엄마’처럼 개인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06 대화에서 호칭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불리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한다면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7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상대에 맞는, 또는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 호칭어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8 ㉠은 고등학생들이 호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로, 특정 집단(고등학생)의 언어생활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호칭어 사용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오답풀이) b. ㉠은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호칭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d. ㉠은 특정 집단의 실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언어 사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을 분석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09 (1) 남고생과 여고생 집단 모두 '실제 호칭'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 결과에서 동급 친구가 나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응답자가 남고생이 70명, 여고생이 36명으로 각 집단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해당 분석은 자료에 근거한 적절한 분석이다.

(2) 여고생은 '젊은 호칭'으로 '야(애)/너'를 선택한 응답자가 28명으로 나타나, 4명에 불과한 남고생에 비해 해당 호칭에 대해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호칭이라도 성별에 따라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10 <보기>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호칭 선호 경향을 보여 준다. '원하는 호칭'에서 '이름'이 남고생 65명, 여고생 47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여, 남고생과 여고생 모두 다른 호칭보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싫은 호칭'에서 여고생이 '야(애)/너'(28명)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남고생은 '욕설'(52명)로 불리는 것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1 전통적인 호칭이나 지칭은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에, 평등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2 전통적인 언어 예절에서 아내가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 때는 남동생의 결혼 여부에 따라 호칭을 구분한다. 미혼일 경우에는 '도련님', 기혼일 경우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언어 예절에 해당한다.

13 전통적인 언어 예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오빠를 '형님'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아내의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아주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남댁'은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15 전통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남동생을 결혼 여부에 따라 '도련님' 또는 '서방님'으로,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로 부른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이러한 호칭은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의 입

장에서 부르는 호칭에 자녀의 이름을 덧붙여 '○○[자녀 이름] 삼촌(㉠)', '○○[자녀 이름] 고모(㉡)'라고 부를 수 있다.

16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손님이 직원을 '젊은이', '총각',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말하는 이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거나 손님으로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회적 힘의 차이를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17 '여기요', '저기요'는 식당, 미용실, 상점과 같은 서비스 기관의 직원을 부르는 말로, 직원과 손님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직접 드러내지 않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③, ④ '젊은이', '총각',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는 말하는 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상대의 나이나 혼인 여부를 규정하여 평가성을 띠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과장님'은 은행,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르는 말로,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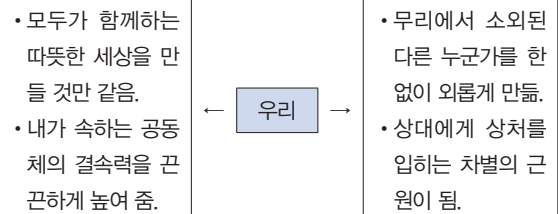
18 은행,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를 때는 직함을 이용하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과 같이 부를 수 있다.

19 (1) 두 번째 문단의 '나와 같은 중학생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중학생임을 알 수 있다.

(2)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하와이에서의 인종 차별 경험)과 '우리'라는 단어의 일상적 사용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20 글쓴이는 '우리'라는 단어는 내가 속하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끈끈하게 묶어 주지만 그 무리에서 소외된 다른 누군가를 한없이 외롭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그 대상이 전제가 되지 못했을 때 상처를 입히는 차별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알아두기 '우리'가 지닌 양면성



21 글쓴이는 '우리'라는 말이 공동체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결속력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외와 차별을 안겨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글쓴이는 하와이에서 겪은 인종 차별 경험을 통해 '우리'라는 말 속에 담긴 배제의 문제를 성찰하고, 밤하늘의 '짜라기 별'에 비유하여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빛과 매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나와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01 ③ 02 ③ 03 ③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가)는 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 상황이므로 친밀함을 나타내는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는 학급 발표라는 공적인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12 '승규 학우'라는 호칭과 격식 있는 높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발표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또한, 담화 상황 측면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학급 발표라는 공식적인 자리의 엄숙함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화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 13 ④ 14 ④ 15 ③ 16 ④ 17 ③ 18 ⑤

19 "저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번 위기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책임자의 입장 발표 내용은 책임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회 전반의 책임으로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과 달리 ㉡은 직원과 손님 사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님과 직원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화자가 청자와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언어의 대인 관계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답풀이 ① 언어의 아름다움을 탐구하여 예술적 감동을 주는 것은 언어의 미학적 기능에 해당한다.

② 복잡한 개념을 추상화하여 사고 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언어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한다.

④ 화자의 개성을 드러내어 독자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적 기능에 해당한다.

⑤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언어의 정보 전달 및 보존 기능에 해당한다.

02 (다)에 따르면 평서문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듣는 이는 정보 수용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달리 명령문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는 행위 요청자의 역할을, 듣는 이는 행위 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보기>에서 서하는 평서문을 사용했으나, 그 이면에는 서준에게 '조용히 하라'는 행위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준이 "조용히 할게."라고 말한 것은 서하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서준은 행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답풀이 ① 서하는 평서문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실제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는 행위를 촉구하는 데 있다.

② 서준은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서하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였다.

④ 서하는 평서문이라는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⑤ 서하의 말을 "조용히 해라."라는 명령문으로 바꾸더라도 서하가 서준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하가 '행위 요청자'이고 서준이 '행위 제공자'라는 역할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03 ㉠은 대화의 주체들이 동일한 인물일지라도 상황(공적/사적)에 따라 높임의 등급(격식체/비격식체)이 달라지는 양상을 의미한다. ㉢에서 '친한 사람'과 '처음 뵈는 어른'은 말을 듣는 이가 서로 다른 상황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04 (나)에서 김동식은 오상식 과장과의 통화 중 장그래에 대해 "스카이 팀에서 왔네요. 낙하산 타고 아주 푹 떨어졌어요.", "인턴이 왔다고요, 인턴. 낙하산 인턴."이라고 말한다. 또한 "진짜 인사 팀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아, 장그래의 영입 배경(낙하산)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가)에서 김동식은 장그래에게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정신 사납게!"라며 면박을 주고 있으므로, 차분하게 조언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김동식은 천 과장에 대해 "걱정 마. 평범한 편이서.", "서로 많이 의지했어.", "좋은 추억이 많아."라고 말하며 그의 합류를 반기워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라)에서 오상식은 "아이고, 인사하러 와서 책상 정리까지 했어?"라고 말하며 천 과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을 뿐, 이를 질책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장그래는 영업 3팀의 신입으로, 김동식보다 낮은 직급에 속한다. (가)~(다)에서 이러한 상하 관계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장그래가 김동식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5 (다)에서 김동식의 높임 표현이 해요체에서 해체로 변화한 근본적인 까닭은 천 과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그래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고 관계가 친밀해졌기 때문이다.

○답풀이 ① (가)에서 김동식은 장그래에게 "왜, 왜?"라는 해체와 "복사 좀 해 와요"라는 해요체를 섞어 쓰고 있다.

② (다)에서 김동식은 장그래에게 "걱정 마.", "원래 영업 3팀에 계셨거든.", "좋은 추억이 많아." 등 모든 문장에서 '-요'가 생략된 해체만을 사용하고 있다.

③ 장그래라는 동일한 청자를 대상으로 (가)에서는 해요체를, (다)에서는 해체를 선택한 것은 상황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대 높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해요체에서 해체로의 변화는 두 인물의 관계가 사적인 친밀감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06 오상식은 천관웅의 말투에 "왜 그래? 새삼스레. 이상해졌어."라고 반응한다. 이는 예전에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였던 천관웅이 갑자기 격식을 갖춘 말투(하십시오체)를 사용하자 어색함을 느낀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예전에는 현재보다 좀 더 친근하게 대화했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오상식이 천관웅의 바뀐 말투를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두 사람이 본래 격식을 갖춰 대화하는 사무적인 사이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 ③ 이 글에서 두 인물이 직급 체계로 인해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오상식의 친근한 말투와 천관웅의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아, 두 사람을 단순히 업무 내용만 공유하는 공식 관계로 보기 어렵다.
- ⑤ 천관웅이 부서를 이동하며 처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존의 친밀했던 언어 관습이 깨진 것에 대해 오상식이 느끼는 위화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07 <보기>에서 팀장과 팀원 모두 해요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여 위계적 호칭을 없애는 동시에, 상하 구분 없이 동일한 높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팀장과 팀원 모두 해요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 ② 영어 이름의 사용은 직급 대신 호칭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 강조와는 관련이 없다.
- ③ 영어 이름은 직급을 대체하는 호칭으로, 직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시도이다.
- ④ <보기>에서는 직급을 없앤 것이 아니라,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부 거래처와의 업무에서는 기존의 직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직급을 완전히 없앴다고 볼 수 없으며, <보기>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08 임휘는 선배인 김영수에게 일관되게 반말(해체)을 사용하고 있으며, 김영수는 “좀 거슬려서.”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다. 즉, 2학년인 임휘가 3학년인 김영수에게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두 사람의 소통을 원활하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09 앞선 대화에서 해체를 사용하던 김영수는 [A]에서 갑자기 격식체인 해라체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반말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김영수가 의도적으로 해라체를 사용함으로써 임휘와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답풀이 ① [A]에서 김영수는 평서문과 해라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결 표현으로 상대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A]에서 김영수는 상대 높임의 등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낮춤인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서 상대의 잘못을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에서 의문문은 나타나지 않으며,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10 <보기 1>에 따르면 우회적인 표현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에서 엄마는 우회적 표현 대신 직접적인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현수에게 심리적 저항감을 주고 있다. 또한, (나)에서 준희의 우회적 표현은 민성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하여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우회적 표현의 효과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답풀이 ① (가)에서 엄마는 “손 씻고, 밥 먹어.”, “청소도 좀 해.”, “숙제도 바로바로 해라.”와 같이 직접적인 명령문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기 1>에서 언급한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② <보기 1>에 따라 엄마가 명령 표현 대신 “방 청소도 하는 게 좋겠다.”, “숙제 먼저 하는 게 어때?”와 같은 부탁이나 권유의 표현(의문문이나 청유문)을 사용한다면, 현수는 자신의 자율성이 존중받는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③ (나)에서 준희가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우회적으로 묻기보다 “나 봉어빵 먹고 싶어.”(평서문)나 “우리 봉어빵 사 가자.”(청유문)와 같이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했다면 민성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④ (나)에서 준희는 봉어빵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사 갈까?”, “간식으로 먹을까?” 등의 의문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민성은 “사고 싶으면 그냥 사자고 말을 해.”라며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11 **서·논·술형**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상대 높임의 등급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사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이므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나)는 교실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발표 상황이므로, 공적인 관계에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의 ‘해체’, (나)의 ‘하십시오체/해요체’를 모두 언급하였다.	☐
(가)는 ‘사적/친밀함/비격식’, (나)는 ‘공적/예의/격식’ 상황임을 명시하였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12 **서·논·술형** 호칭 및 지칭과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사회적 관계 및 대화 상황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와 같은 공식적인 발표 상황에서는 평소의 친분보다 발표자와 청중이라는 공적인 역할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승규야’라는 사적인 호칭 대신 ‘승규 학우’라는 공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격식체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동시에, 해당 담화가 공식적인 질의응답임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듣는 이와 관계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이상 적절히 제시하였다.	☐
담화 상황(공식적 상황)의 성격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이상 적절히 제시하였다.	☐

13 (가)에서 엄마를 직접 부를 때와 타인에게 지칭할 때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더라도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ㄱ). 또한 (가)에 등장하는 ‘형씨’의 사례는 과거에 높임의 의미를 지녔던 표현이 현재에는 비아냥거리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인식이 변

화하였음을 보여 주어, 시대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ㄴ). (다)와 (라)에서 '우리'는 화자와 청자를 동시에 가리키는 기능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ㄷ).

○답풀이 ㄹ. (나)에 따르면 '선배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단 내 지위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14** <보기>에서 제시한 '불특정한 다수를 가리키는 말'로서의 '우리'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넘어 일반적인 사람 전체를 포괄하고 자 할 때 사용된다. ④의 '우리'는 특정한 청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불특정한 다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답풀이 ① 동생이 말하는 '우리'는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속한 가족이라는 특정 집단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표현이다.

② 친구가 말하는 '우리'는 화자와 청자 두 사람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③ 외동딸이 말하는 '우리'는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⑤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우리'는 화자가 소속된 학교라는 특정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15** 이 글에 따르면 호칭어와 지칭어는 현재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관계의 성격을 바꾸거나 새롭게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나)에서 서먹한 사이임에도 '언니', '형'이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례와, (라)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고취하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㉔에는 '새롭게 관계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6** <보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내가 속하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끈끈하게 묶어 주지만, 그 무리에서 소외된 다른 누군가를 외롭게 만든다고 하였다. 즉, '우리'라는 표현은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

○답풀이 ① '우리'는 공동체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우리'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소외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③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동질감과 소속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⑤ '우리'는 차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의 근원이 될 수 있다.

- 17** (나)에 따르면 전통적인 호칭어로 아내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는 '아가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제'는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이므로, 아내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아내가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으로 부르고, 남편의 형이 남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적절하다.

② 남편이 아내의 오빠를 '형님'으로 부르고, 아내의 오빠가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적절하다.

④ 남편이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으로 부르고, 아내의 남동생이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적절하다.

⑤ 남편이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 서방'으로 부르고, 아내의 제부가 처형의 남편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적절하다.

- 18** 전통적인 호칭 체계는 현대의 평등한 가치관과 충돌하여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동생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야', '너'와 같은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다)와 (라)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어 '○○[자녀 이름] 삼촌', '○○[자녀 이름] 고모'라고 부르거나,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을 빌려 '매부님', '매제님'과 같이 부르는 등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호칭을 제시하고 있다.

○답풀이 ① <보기>에서 '박 씨'가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으로 부르는 것은 (나)에 제시된 전통적인 호칭 관습을 따른 것이다.

② <보기>에서 '박 씨'는 남편의 두 동생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아가씨',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은 자신의 동생에게 '처제'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가)에서는 현대의 변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 호칭의 비대칭성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보기>에서 '박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의 동생들을 높여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어색함은 전통적 호칭 체계와 현대적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 주며, 이는 대안적 호칭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배경이 된다.

④ <보기>에서 '박 씨'의 남편이 '박 씨'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는 것은 (나)에 제시된 전통적인 호칭 관습을 따른 것이다.

- 19** **서·논·술형** “저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번 위기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책임자의 입장 발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 전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흐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
책임자의 발언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였다.	☐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사회 전반의 책임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사건과 관련 없는 타인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

- 20** **서·논·술형** ㉠ '총각'은 상대의 신분이나 특징을 직접 드러내어 나이 차이나 사회적 힘의 차이를 부각하는 반면, ㉡ '저기요'는 직원과 손님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지 않아 손님과 직원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총각)과 비교하여 ㉡(저기요)이 사회적 관계를 직접 드러내지 않아 손님과 직원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과 달리 ㉡은 ~ 때문이다.'의 형식에 맞게 서술하였다.	☐

4. 매체 환경과 언어생활

01. 매체 속에 담긴 사회

탐구 1 매체 환경 속 사회적 담론

확인 문제

193~200쪽

- 01 O 02 X 03 O 04 경쟁 05 정체성
 06 평가 07 O 08 O 09 추구 10 편견
 11 (1) O (2) X 12 ㄱ 13 (1) O (2) X
 14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된다 15 요인(변수) 16 (1) X (2) O 17 디지털

- 01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넘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내포한다.
- 02 사회적 담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일회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이며 집단적인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될 때 형성된다.

알아두기

사회적 담론의 개념과 역할

개념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이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일회적·개별적·개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집단적·사회적 수준으로 확장된 것
역할	• 말·글·이미지·영상을 통해 사실, 감정, 의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 • 사회 구성원의 신념·가치관을 변화시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함. • 사회 구성원이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담론에는 객관적 정보뿐 아니라 평가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수용해야 함.

- 03 사회적 담론은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된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기도 하며,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담론이 구축되기도 한다.
- 04 한 사회 내에서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형성된 사회적 담론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담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지를 얻어 강화되기도 하고, 반박에 부딪혀 세력이 약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담론 간의 상호 작용은 경쟁의 양상을 띠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 담론이 소멸하거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05 사회적 담론은 매체를 통해 사실이나 의견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 행위를 하도록 이끌거나,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 06 사회적 담론에 담긴 정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말과 글, 이미지 등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 07 어떤 대상을 향한 특정한 평가가 반복되고 사회 전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상에 대한 고착화된 생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만들어진다.
- 08 광고에서 '속도 향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속도가 빠른 상태를 긍정적인 것, 즉 '좋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체 메시지의 이면에는 특정 상태를 지향하는 가치 판단이 이미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 09 매체 환경에서 소통되는 정보에는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지향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알아두기

전제된 평가와 고정관념의 관계

어떤 종류의 평가가 사회 내에서 지속되면 평가 자체가 언급되지 않기도 함.

예 특정 제품을 사용하면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질 수 있다는 광고 → '머릿결은 부드러운 것이 좋다.'라는 평가가 전제됨.



사회적 담론에 전제된 평가는 특정 대상이 좋거나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됨.

- 10 드라마에서 표준어 사용자는 완벽한 모습으로, 사투리 사용자는 어설픈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은 특정 언어 사용자에 대해 고착화된 편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 11 (1) 자료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사투리 교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67.1%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표준어가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꼽았다.
- (2) 그래프 자료(2015년 기준)를 보면 '표준어와 지역 방언 둘 다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다.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36.1%로 그다음 순위이다.
- 12 이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투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취업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사투리 교정을 고민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투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희화화하기 때문이다.
 다. 사투리 사용자는 동향 사람과 대화할 때만 사투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지, 그때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13 (1) 이 자료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 깔린 가치 판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적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 이 자료의 필자는 해당 주장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폭력적인 방식이며, 과학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결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알아두기 '화목한 가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의 문제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
 (→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된다.)

-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폭력적 발상임.
- 수많은 환경 요인 중 가장 말하기 쉬운 것을 골라 근거 없이 비약한,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임.

글쓴이는 논의의 초점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사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도 되는지에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 14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반대의 경우를 배제하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된다'와 동일하게 읽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했다고 설명한다.
- 15 필자는 특정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도, 성인이 된 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에는 어린 시절 가족 내 대화 외에도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연구는 그 모든 변수를 통제하거나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 16 (1) 이 공익 광고는 키오스크 사용이나 길 찾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돕는 '디지털 나눔과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기기 조작법을 교육하는 안내서가 아니다.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소통의 태도가 필요함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17 광고의 1, 3번 장면에서 어르신이 "아유,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 여기가 어디야?"라며 곤란해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2, 4번 장면에서 누군가가 어르신을 돕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기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광고가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탐구 2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는 매체 언어

확인문제

207~212쪽

- 01 보도 02 표제 03 X 04 ① 05 ②
 06 지혜 07 ① 08 주어 09 O

- 01 보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선별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02 신문 기사에서 보도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소 중 하나가 표제이다. 표제는 기사의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응축하여 나타낸다.

+ 이해 더하기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와 기능

표제	기사의 핵심 내용을 가장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기사 선택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니며, 간결성과 함축성이 요구됨.
부제	표제 아래에 제시되는 보조 제목으로, 표제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핵심 정보나 사건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지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
전문	기사의 도입부로, 사건의 핵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임. 독자가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도의 방향성과 주요 정보를 제시함.
본문	전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 발생 배경, 원인과 결과, 관련 인물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임. 자료 제시와 인용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확보함.
해설 및 전망	기사의 마무리 부분으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적 영향 및 향후 전개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능을 지님. 사실 전달을 넘어 사건의 맥락과 파급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

- 03 보도에서 실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어떤 발언을 인용하고 누구의 입장을 드러낼지에 대한 판단은 보도문 작성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 04 능동문인 '경찰은 오늘 새벽 김 씨를 검거하였다.'는 행위의 주체인 '경찰'이 주어로 쓰여 경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피동문인 '김 씨가 오늘 새벽 경찰에게 검거되었다.'는 행위의 대상인 '김 씨'를 주어 자리로 옮겨 문장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행위 대상자를 부각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보도 기사에서 사건의 결과나 영향을 받은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때로는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사건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제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05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보도 언어를 세밀하게 탐구하면 피동 표현 등을 통해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특정 대상을 부각하여 사건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치우침 없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공정성(㉓)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선택에 내재된 제작자의 특정한 관점(㉔)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올바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06 이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담론에서 대상을 드러내지 않는 표현 방식은 대상을 보호하고 배려하려거나,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행위 주체의 책임 의식을 약화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즉, 특정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대상에 대한 주목도를 낮추거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경민: 사회적 담론을 분석할 때에는 말이나 글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내용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내용에 담긴 의도까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자료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민수: 환경 담론에서 인간의 책임 의식을 약화하기 위해 피동 표현이나 명사화 등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략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07 ㉑은 '수입하다'라는 능동 표현 대신 '수입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행위의 주체(인간)를 문장에서 드러내지 않고, 인간에 의해 수입되는 대상인 '아보카도'를 부각하고 있다. 이는 보도나 정보 전달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사건의 결과 자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주체의 책임 의식을 약화하는 효과를 주는 언어 전략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주체를 명확히 밝히거나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은 주체를 숨기려는 의도와 상충하는 방식이다.

③ '국내에서'와 같은 표현은 장소를 나타낼 뿐, 시간 표현을 통해 주체를 숨기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④ ㉑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는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는 기능이지 주체를 숨기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⑤ ㉑에는 외부의 발언이나 자료를 인용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인용은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일 뿐 주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08 “그러나 전반 5분 만에 실점했습니다.”라는 문장은 실점을 한 행위의 주체인 '대표 팀(한국 축구 대표 팀)'을 생략하고 있다. 이처럼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면 행위의 주체인 대표 팀이 문장 전반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는 실점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의 책임을 대표 팀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표 팀을 실점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준다.

09 문장의 주어 생략하면 보도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평가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다.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문장은 행위의 주체나 정보의 출처가 모호해지면서, 독자가 해당 내용을 보도자의 선택적 관점이 아닌 일어난 사건 그 자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체 언어가 수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소단원 평가

219~223쪽

01 ② 02 ⑤ 03 ④ 04 머릿결이 부드러운 것이 좋다.

05 <보기>는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방향의 담론 형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06 ㉑의 대립적 사고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된다.'이다. ㉑과 같은 주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람을 평가한 것이므로 폭력적이다. 07 ①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⑤ 13 아보카도의 맛을 즐기는 소비자가 숲을 지운다 14 [A]에는 우리 대표 팀의 경기 결과에 대한 보도자의 비판적 어조가 드러난다. “무조건 이긴 뒤 같은 조 다른 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라는 문장은 대표 팀의 상황을 궁지에 몰린 것으로 규정하는 주관적 표현에 해당한다.

15 가나전 2-3 석패...16강 전망은?

01 사회적 담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이나 방향성이 지속적·집단적·사회적 수준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매체는 이러한 담론의 형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담론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체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담론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사회적 담론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형성되고 확산되며, 특정 가치와 관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담론을 수용할 때에는 그에 담긴 가치와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⑤는 사회적 담론이 반영하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03 (다)에서는 사회적 담론에 담긴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특정 대상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평가가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시 되면 구성원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변화시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게 된다. <보기>에서 예능 프로그램 등이 사투리를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여 전달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사투리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교정하려는 행위를 보이는 것은 담론 속의 평가가 수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에 담긴 사투리에 대한 평가가 구성원의 신념을 변화시키고 특정 행위를 유도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답풀이 ①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투리를 다루는 경우 사투리에 대한 이해가 목적인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투리를 희화화하거나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등 부정적인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사투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지역 간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에서 사회적 담론에 담긴 정보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말과 글, 이미지, 영상 등에는 사실적인 정보뿐 아니라 평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하였다.

③ (다)와 <보기> 모두에서 사회적 담론이 대상을 부각하고자 이분법적 범주화를 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다)에서 사회적 담론은 정보를 제공하고, 행위를 유도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이 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담론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사투리 사용자들이 사투리를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사회적 담론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행위를 유도하는 등 그 역할이자 영향력이 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4 (라)에서 이국적인 풍경이나 운동하는 모습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한 점을 참고할 때, <보기>의 광고 문구에는 부드러운 머릿결이 ‘좋은 것’ 또는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

05 서·논술형 <보기>는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드러낸다. 청년이 어르신을 돕는 장면과 ‘오지랖’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러한 도움이 단순한 개인의 참견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 방법을 안내하여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방향의 담론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평가 기준	확인☑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사용 방법 안내를 통한 격차 완화 또는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06 서·논술형 ㉠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면에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대립적 사고를 형성한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점에 있다. <보기>에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슴속에 어둠을 키워 가고 좋은 어른이 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는 폭력적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대립적 사고를 서술하였다.	☐
㉠이 폭력적이라는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
‘선택’, ‘환경적 요인’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07 (나)에 따르면 인용문의 내용은 실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지만 어떤 발언을 인용할 것인지, 누구의 입장을 드러낼 것인지는 작성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인용문에도 보도의 관점(주관)이 담긴다. 즉,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선택의 과정에서 보도자의 주관의 개입되므로 주관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② (가)에서 보도는 수많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보도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표제’이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자막’을 통해 핵심적인 관점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보도자는 언어의 표현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독자의 생각과 느낌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그 방식이 정교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나)에서 사진, 영상, 배경 음악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히 음악의 분위기를 통해 전달되는 정서에도 보도의 관점이 담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08 ㉠은 능동문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인 ‘경찰’을 부각하는 반면, ㉡은 피동문을 사용하여 행위의 대상인 ‘김 씨’를 부각한다.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실체는 동일하나, 언론이 선택한 문장 구조에 따라 독자가 집중하게 되는 대상이 달라진다.

○답풀이 ① ㉠은 피동 표현이 아니라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능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② ㉡에는 ‘경찰에게’라는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찰을 문장 성분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행위의 주체인 경찰을 생략하였으므로, 독자는 주체의 역할보다 검거된 대상인 ‘김 씨’에게 더 주목하게 된다.

⑤ ㉤은 행위의 주체를 생략한 문장이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를 모두 명시했다는 진술은 사실과 어긋난다.

09 주어를 생략하면 행위의 주체보다는 사건의 결과나 대상이 부각된다. ‘실점했습니다’ 역시 실점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생략한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주체를 강조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가)에 따르면 사회적 담론에서 대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감추거나 약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거나 현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대상을 숨기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설명하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답풀이 ① 2차 가해가 염려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줄여 당사자를 보호하는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②, ③ 대상이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하다는 인상을 주고, 특정 대상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로 대상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④ 대중의 과도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보호하고 배려하려는 의도로 대상을 숨기기도 한다.

알아두기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담화 효과

능동 표현	행위 주체를 전면에 드러내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님.
피동 표현	행위의 대상이나 결과를 강조하고 행위 주체를 드러내지 않거나 약화하여 책임 인식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지님.

↓

- 동일한 사건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독자의 해석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매체 언어에서는 표현 선택이 보도의 관점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11 <보기>의 문장에서는 ‘소고기’라는 사물을 환경 오염의 ‘주범(범죄를 저지른 주요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실제 주체인 ‘인간’을 숨기기 위해,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체로 내세운 의인화 전략에 해당한다.

12 (나)는 ‘아보카도가 생산된다’, ‘전량 수입되는데’, ‘320 L의 물이 소요되는데’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어를 생략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이는 아보카도를 재배하고 수입하며 물을 소비하는 주체인 ‘인간’을 문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가)에서 설명하듯, 이러한 언어 표현 전략은 환경 파괴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의식을 약화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답풀이 ① (나)에서 아보카도 재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물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단순히 자연적 조건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만 정당화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오히려 ‘생산된다’, ‘수입된다’, ‘소요된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능동 표현을 통해 주체의 행위를 강조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③ 환경 오염의 결과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원인을 완전히 은폐하기보다는 원인이 되는 주체(인간)를 숨겨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④ (나)의 서술 방식은 다양한 주체의 복합적 작용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핵심 주체를 문장에서 지움으로써 인과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알아두기 의인화의 담화 효과

개념	사물이나 자연 현상, 추상적 개념에 인간의 감정·행위·의지를 부여하여 표현하는 전략임.
표현 방식	비인간 대상을 주체로 설정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표현함. 예 자연이 분노하다 → 인간의 감정 부여 지구가 병들었다 → 인간의 행위 부여 하늘이 인간에게 벌을 내리다 → 인간의 의지·목적 부여
담화 효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감정 이입을 유도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한편, 실제 책임 주체를 흐릴 수 있음.

13 <보기>의 원문은 ‘아보카도’라는 사물을 주어로 내세워 환경 파괴의 주체인 ‘인간’을 숨기는 의인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보카도를 소비하고 수요를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행위자인 ‘소비자’를 주어로 명시함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의식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서·논술형 보도는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의 관점을 담는다. [A]의 문장에서 ‘무조건 이긴 뒤’라는 표현은 남은 경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강조하며, ‘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는 표현은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불가능해진 대표 팀의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한다. 이는 객관적인 경기 결과(1무 1패)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 팀이 처한 상황을 위태롭고 수동적인 상태로 규정하려는 보도자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개입된 결과이다. 이러한 정교한 언어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대표 팀의 행보를 더욱 불안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다.

평가 기준	확인☑
보도자의 어조와 태도를 지문의 분석 관점(비판적/부정적 등)에 맞게 명확히 제시하였다.	☐
[A]의 구체적인 표현(‘무조건 이긴 뒤’, ‘처지가 됐습니다’ 등)을 근거로 활용하였다.	☐

15 서·논술형 ㉠의 ‘빨간불’은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정하는 표현 대신 사건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거나 향후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 형식을 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패배라는 사실은 전달되 특정 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비난받을 우려가 있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려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대표 팀을 존중하는 태도를 담아 부정적인 표현(‘빨간불’ 등)을 적절히 바꾸어 썼다.	☐
패배의 책임 당사자(비난받을 대상)를 전면에서 숨겼다.	☐

02. 매체를 통해 만드는 사회

탐구 1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인 문제

225~229쪽

- 01 O 02 O 03 X 04 ㉠: 소비 ㉡: 담화
 ㉢: 재생산 05 (1) O (2) X (3) O 06 다큐멘터리
 07 ㄱ 08 ㉠ 09 요약 10 O 11 ㉡

- 01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문·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나 라디오·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가 중심이었으며,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전통적인 기술이 필요하였다.
- 02 인터넷 등장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몇만 혹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한 사람의 창작자가 만든 영상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청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이 생산한 담화를 소비하는 사람의 수와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 03 생산된 한 개의 담화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생산과 소비가 일대일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04 '담화의 재생산'은 자신이 소비한 담화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담화의 소비자를 늘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는 재생산의 출발점이 되는 '소비', ㉡에는 전달되는 대상인 '담화', ㉢에는 이러한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인 '재생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5 (1) 제인 구달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 섬의 침팬지 서식지에 도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제인 구달은 침팬지 서식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학위도 없던 젊은 여성이었으므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 연구 초기 침팬지들은 제인을 낯설게 여기며 도망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06 (가)는 실제 인물인 제인 구달의 활동과 생애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자료를 다큐멘터리라고 한다.

+ 이해 더하기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극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실제 인물과 사건, 상황을 바탕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영상 갈래이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의 관점이나 특정한 메시지를 담아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성, 기록성, 제작자의 비판적 시각이 개입되는 해석의 과정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대본에 의한 연기보다는 실제 상황의 흐름을 따르는 비허구적 성격을 띤다.

- 07 (나)가 게시된 매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매체이다. 이 매체는 게시 직후 다양한 반응이 빠르게 오고 가는 실시간 소통의 특징을 지닌다.

○답풀이 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유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특정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정보를 생산하는 구조이므로, 정보 생산자가 전문가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8 (나)는 (가)의 담화 중 일부 장면을 선택하여 게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상, 추천의 이유 등을 덧붙여 원본 담화를 새롭게 구성한 자료이다. 이는 원본의 내용을 단순히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석과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재생산 방식에 해당한다.

알아두기

담화 재생산의 개념과 방식

개념	자신이 소비한 담화를 또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담화의 소비자를 늘리는 일체의 행위
방식	• 담화에 대한 각색 없이 그대로 전달함. • 적극적으로 원본 담화를 각색함. → 그 결과물이 또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되기도 함.

- 09 (다)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된 자료로, 원본 영상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핵심 장면과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요약·재구성한 재생산 방식에 해당한다.
- 10 (라)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로, 원본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감상과 평가를 덧붙여 전달하고 있다. 이는 원본 담화에 주관적 감상을 추가한 재생산 방식에 해당한다.
- 11 (다)는 원본 영상을 핵심 장면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였고, (라)는 원본 영상 링크에 개인적 감상을 덧붙여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하였다. 두 자료 모두 담화 소비자가 원본 담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담화의 자유로운 재구성과 개인 간 공유가 현대의 담화 생산과 소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다.
- 답풀이 ① (다)와 (라) 모두 문자뿐 아니라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다)와 (라)는 담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재구성하여 재생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다)와 (라)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담화를 재생산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특히 (라)는 개인 간 대화로 감동적이라는 감상평과 함께 지인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유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다)에서는 원본 담화의 소비자가 이를 직접 요약하여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게시하고, (라)에서는 원본 담화의 소비자가 영상의 링크와 영상에 대한 감상을 메신저로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자료 모두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탐구 2 반응, 하고 받고 이끌고

확인 문제

233~240 쪽

- 01 O 02 O 03 O 04 C 05 X
 06 ⑤ 07 댓글 08 O 09 X 10 대댓글
 11 (1) O (2) X 12 갈등 13 포털 사이트
 14 ④ 15 사전 정보 왜곡 현상 16 X 17 ①
 18 ⑤

- 01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게시물에 대해 즉시 반응을 남길 수 있고,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구조를 지닌다. 이는 의견 표현이 신속하게 공유되는 매체의 특성을 보여 준다.
- 02 댓글은 기존 게시물에 대한 반응으로 덧붙이는 글로, 이를 통해 이용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댓글은 온라인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댓글의 개념과 기능

개념	인터넷에 게시된 원문에 짧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활용 범위	인터넷 뉴스, 동영상,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웹툰 등 인터넷에 게시되는 거의 모든 게시물에 작성 가능함.
기능	• 게시물과 상호 작용하며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조정함. • 게시물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거나 잘한 점을 격려함. • 게시물에서 주목할 부분과 정보의 신뢰성을 알려 줌. • 게시물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침.

- 03 댓글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판단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댓글이 여론 형성 과정에 관여함을 보여 준다.
- 04 댓글은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조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게시물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ㄱ. 댓글은 원본 게시물과 상호 작용하며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ㄴ. 댓글은 단순히 의견을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게시물의 특정 내용에 주목하게 하거나 문제점을 부각함으로써 게시물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댓글은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05 이 글에서는 댓글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보다 읽기만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소수의 사람이 댓글 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수는 댓글을 읽기만 한다고 설명한다. 즉 댓글과 '좋아요'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06 동영상 기반 뉴스 플랫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언론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온라인 매체에 해당한다. 반면 방송사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를 통해 제공되므로 온라인 뉴스 이용 매체로 보기 어렵다.

- 07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뉴스를 볼 때 댓글을 '항상' 또는 '종종 읽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5월에는 91%, 2021년 12월에는 8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많은 사람이 뉴스 기사를 읽을 때, 댓글도 함께 읽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 08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뉴스 내용과 함께 댓글을 읽는다는 응답자의 89%가 매우 또는 종종 화면 상단에 제시된 주요 댓글 몇 개를 함께 읽는다고 답했다. 또한 주요 댓글 외에 다른 댓글들을 매우 또는 종종 함께 읽는다는 응답도 77%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상위 댓글을 주로 읽되 추가적인 댓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9 댓글은 추천 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주요 댓글을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천 수가 많은 댓글일수록 더 많은 이용자에게 읽힐 가능성이 크다.
- 10 댓글을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댓글'까지 함께 읽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용자들이 게시물에 대한 1차 반응뿐 아니라 그에 대한 추가적인 반응까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 이해 더하기

대댓글의 기능과 소통 구조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활용되는 '대댓글'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댓글이 게시물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라면, 대댓글은 그 댓글에 다시 반응하는 2차적인 반응으로, 소통의 층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를 '스레드(Thread)' 방식이라고 하며,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어 사용자 간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댓글이 길어질수록 대화의 초점이 본래 게시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감정적 대립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대댓글을 작성할 때는 전체 토론의 맥락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 11 (1) 자료에서 댓글이 뉴스를 읽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률이 55%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률 14%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 (2) 자료에서 댓글이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만든다는 응답률은 21%에 불과하며, 제대로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6%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이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만든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자료에서 댓글을 통해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응답률은 19%인 반면, 갈등이 커진다는 응답률은 46%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기>의 괄호 안에는 화합과 대비되는 '갈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포털 사이트'이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4 자료에서는 댓글 작성 상위 10% 이용자가 전체 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극소수의 이용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표출하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소수 이용자의 의견이 여론으로 과잉 대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답풀이 ① 이용자 수의 증감 추이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댓글 작성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댓글 조작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③ 기사 내용별 댓글 수 비교가 아니라, 댓글 작성자의 분포와 비중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뉴스의 신뢰도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댓글을 통한 여론 형성 구조를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사전 정보 왜곡 현상'이다. 이는 개인이 기존에 지닌 감정적 선호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게 해석·평가하는 인지적 경향을 의미한다.

16 확증 편향은 이미 형성된 태도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으로, 기존 태도가 형성된 이후에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이다. 반면 사전 정보 왜곡 현상은 태도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초기 정보에 영향을 받아 판단이 편향되는 현상으로, 두 개념은 편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알아두기

사전 정보 왜곡 현상과 확증 편향

	사전 정보 왜곡 현상	확증 편향
개념	자신이 가진 감정적 선호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편향되게 평가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신념·판단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차이점	확실하게 태도가 결정되기 전, 혹은 스스로의 선호를 인식하기도 전에 발생함.	태도가 이미 견고하게 형성된 이후에 발생함.
공통점	심리적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발생함.	

17 ①은 다양한 댓글을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초기 정보에 의해 판단이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을 조정하는 모습이므로 ①의 예로 보기 어렵다.

18 ㉔에서는 뉴스 기사에서 접한 첫 댓글의 입장에 따라 이후 댓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초기 정보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쳐 특정 방향으로 해석이 편향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불분명한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여 담화를 재생산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잘못된 내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08 담화의 재생산은 특정 사건을 사회적 관심사로 만들어 법 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재생산될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09 ④ 10 ⑤ 11 ① 12 ② 13 사전 정보 왜곡 현상은 이미 형성된 태도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편향에 대한 욕구로 인해 발생하며, 새로운 정보를 편향되게 처리하여 기존 태도를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결과로 나타난다.

14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처음 접하는 댓글은 사전 정보로 기능하여, 이후 접하는 댓글이나 정보를 편향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첫 댓글의 관점과 비슷한 댓글은 긍정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01 (가)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도 정보 유통이 일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전통적인 대중 매체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여 기업이 정보를 생산하고 개인은 소비하는 입장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인터넷 발달 이후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라)에서 원본 담화를 각색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드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2 (나)에서 담화는 사회 속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반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특징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재와 구별되는 담화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⑤ (나)에서 담화는 소비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소멸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담화의 소비는 특별한 노력 없이 지속되기도 하며,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삭제하지 않는 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비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 담화는 한 개를 생산하면 몇십만,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3 뉴스 기사를 읽고 메모장에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자신이 소비한 담화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므로, (다)에서 설명하는 담화의 재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알아두기 **담화의 재생산 기준**

담화의 재생산은 기존 담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담화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확장하더라도, 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읽고 개인 메모장에 정리하는 것은 개인적 이해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며, 블로그·SNS·메신저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에 비로소 담화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

- 04 ㉠은 고전 소설을 요약하고 이미지와 음악을 더한 것으로, 각색 정도가 높은 사례에 해당한다. <보기>에 따르면 각색 정도가 높을수록 원본의 내용이 변형되어 정보가 왜곡된 형태로 전달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은 내용을 요약하고 이미지와 음악을 추가하여, 각색 정도가 높은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은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재생산이므로, 개인적 감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새로운 매체 요소를 추가하여 각색한 것이므로 원본과 유사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라)에 따르면 ㉠과 같이 적극적인 각색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05 (다)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게시물로, 원본 방송의 핵심 내용을 짧은 영상과 간략한 설명(텍스트)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개인적인 감상과 의견을 함께 담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 위주의 정보 전달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라)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인에게 개인 메신저로 공유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영상 화면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한 것은 (다)로, 'EBS 위대한 수업 1~4강 핵심 요약'과 같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였다.

⑤ (나)와 (다) 모두 해시태그를 활용하였다. (나)는 '#위대한_수업 #제인_구달', (다)는 '#제인_구달 #EBS_위대한_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 ㉠ '좋아요 813개'는 해당 게시물을 본 수용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한 수치이다. 이는 담화를 소비한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담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드러낸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알아두기 **'좋아요'의 파급력**

-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같은 반응을 남길 수 있음.
- 대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댓글이 제시됨.

↓

'좋아요'의 수는 댓글의 파급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07 **서·논술형** 희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담화 재생산 과정에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해

당하며,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사실 검증 부족, 무비판적 재생산 등 담화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
자료 속 희수의 발화(가짜 뉴스 제시 등)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

- 08 **서·논술형** <보기>와 같이 담화의 재생산은 특정 사건을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시켜 법 제정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특정 매체 환경에서 악의적으로 재생산될 경우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담화를 재생산할 때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담화 재생산의 긍정적 영향(사회적 관심 형성, 제도 변화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
담화 재생산의 부정적 영향(악의적 재생산, 신뢰성 저하, 사회적 혼란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
담화를 재생산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

- 09 (나)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댓글에 '좋아요'로만 반응한다는 설명은 댓글의 활용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댓글은 게시물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도 하고 잘한 점을 격려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에서 많은 사람이 게시물에 달린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그 댓글에 표시된 반응까지도 살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라)에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여 대중의 인식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 내용 그 자체를 캡처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10 ㉠과 같은 자료는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 댓글이 사회의 보편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여론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11 (라)는 댓글을 대중의 인식으로 간주하고 소개하거나, 재생산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댓글과 '좋아요'가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믿음이 재생산을 통해 강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⑤ (다)에서 댓글은 이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오히려 댓글이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라)에서 댓글은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으로 소개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2 <보기 1>의 통계에서 '제대로 토론이 되지 않는다', '갈등이 커진다' 등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기 2>에서도 댓글 공간에서의 갈등과 욕설을 이유로 댓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댓글이 화합을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댓글이 뉴스를 읽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므로 적절하다.

③ 댓글 기능이 '제대로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로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만든다'는 응답(21%)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 2>에서 댓글 공간의 싸움과 욕설 때문에 댓글을 읽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 1>에서 '갈등이 커진다'는 응답이 46%로 높게 나타나고, <보기 2>에서 욕설 사례가 언급되고 있어 댓글의 부정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13 **서·논·술형** 이 글에 따르면 사전 정보 왜곡 현상은 이미 형성된 감정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편안함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는 객관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기존 태도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처리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심리적 동기(심리적 편안함에 대한 욕구)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기존 태도의 유지 및 강화, 정보의 편향적 처리 등)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
글에 제시된 용어(태도, 편향, 사전 정보 왜곡 등)를 활용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4 **서·논·술형** 사전 정보 왜곡 현상은 초기 정보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쳐 정보를 편향되게 해석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댓글 상황에 적용하면, 인터넷에서의 첫 댓글은 이후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사전 정보'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 수용자는 이후에 접하는 댓글이나 정보를 처음 접한 댓글의 방향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편향된 관점에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첫 댓글이 사전 정보로 기능하여 이후 정보 해석이 편향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긍정·부정 방향의 변화 등 구체적 영향을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

알아두기 사전 정보 왜곡 현상과 첫 댓글의 영향

사전 정보 왜곡 현상	본인이 가진 잠정적 선호나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편향되게 평가하는 것
↓	
첫 댓글의 영향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형성하기 전에는 처음 접한 댓글이 관점 형성의 주요 단서로 작용함.

5. 품격 있는 언어생활

01. 바람직한 공공 언어 사용

탐구 1 공공 언어와 거리 좁히기

확인 문제

259~263 쪽

01 O	02 O	03 X	04 소통성	05 X
06 X	07 X	08 ④	09 (1) O (2) O (3) X	
(4) X	10 ②			

- 01 공공 언어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공공 언어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하는 언어에 한정된다. 반면, 넓은 의미의 공공 언어는 생산 주체와 관계없이 언론, 교육, 방송, 공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포괄한다. 따라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모든 언어 활동은 넓은 의미의 공공 언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02 공공 언어는 전달 방식에 따라 크게 공공 문어와 공공 구어로 구분된다. 게시문, 법령, 보도 자료처럼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를 공공 문어라고 하고, 대국민 담화, 정책 브리핑, 방송 언어처럼 말을 통해 소통하는 형태를 공공 구어라고 한다.

- 03 공연물의 대사는 넓은 의미의 공공 구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공공 구어는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정책 브리핑 등과 같이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하는 언어 활동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연물의 대사는 생산 주체가 공공 기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넓은 의미의 공공 언어 중 공공 구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공공 언어의 유형

	좁은 의미의 공공 언어	넓은 의미의 공공 언어
공공 문어	게시문, 법령, 보도 자료, 정책 설명문, 정책 안내문, 판결문, 홍보문 등	신문 기사, 은행 약관, 거리 간판, 사용 설명서, 현수막 등
공공 구어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정책 브리핑,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뉴스 방송 언어, 연극·뮤지컬의 대사,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등

- 04 바람직한 공공 언어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을 지켜 공공의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는 '정확성'이고, 둘째는 일반 국민이 쉽고 친숙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소통성'이다. '소통성'은 다시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으로 세분되며, 이는 권위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알아두기

'소통성'을 구성하는 요소

공공성	비속어와 욕설 같은 품격이 낮은 표현을 삼가고, 강압적·권위적 표현이나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정보성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의 양과 형식을 조절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하는 것
용이성	적절한 길이의 문장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 주석이나 그림 등을 활용해 시·각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05 공공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인 정부와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무원들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해야 하며, 국민 역시 소통을 가로막는 공공 언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

06 공공 언어의 가치는 어려운 표현을 통해 권위를 내세우고 품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특정 계층을 소외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 언어는 가급적 쉽고 친숙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07 공공 언어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우리말과 함께 표기하거나 그림 기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8 '마본채색'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공공 안내문에 사용하면 국민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삼베 바탕에 색을 칠함'과 같이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풀어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09 (1) 개선 전의 '마본채색'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 후에는 '거친 삼베 바탕에 채색하는 방식'으로 쉽게 풀어 적었다. 또한 '보관'이나 '광배' 같은 전문 용어에는 별표(*)를 달고 하단에 주석을 붙여 설명하였다.

(2) '8.36 m', '4.32 m'처럼 수치와 단위를 띄어 썼으며, '둥글넓적해진'을 '둥글넓적한'으로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였다.

(3) 개선 전 안내문에도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개선 후 안내문은 이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평가를 덧붙인 것은 아니다.

(4) 개선 후 안내문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손 모양이나 옷자락의 색상 등 구체적인 묘사를 오히려 보강하여 독자가 유물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해 더하기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단위 명사란 수효나 분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개, 마리, 권, 미터(m), 킬로그램(kg)' 등이 있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숫자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붙이는 것도 허용한다.

10 '생김새가 둥글면서 넓적하다.'를 의미하는 표준어는 '둥글넓적하다'이므로 '넓적'이 아니라 '넓적'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을 고친 표기로 적절한 것은 '둥글넓적한'이다.

탐구 2 슬기로운 공공 언어 생활

확인 문제

268~274 쪽

01 O	02 X	03 X	04 산사태	05 ㄹ
06 O	07 ㉠: 해시태그 ㉡: 핵심어			08 ㉢
09 ㉣	10 책임감			

01 공적 언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나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며, 언어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고려한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적 언어와 달리, 공적 언어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동체의 이해와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02 온라인 소통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사적인 글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고,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개인의 언어가 맥락에 따라 공공성을 띠게 되는 만큼, 사적인 표현에서도 공적 책임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03 이 보도 자료는 산림청이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배포한 문서이므로 공적 언어에 해당한다. 공적 언어는 국가나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언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사적 언어와 구별된다.

04 산림청은 이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산사태 예보 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위험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 05 이 자료는 '산사태 방지 대책'이라는 정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원인을 주관적으로 서술한 자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ㄱ. 붙임과 참고 항목을 통해 내용과 관련된 부가 자료를 첨부하였다.

ㄴ. '①, ②, ③, ④'와 '▲' 등의 기호를 활용하여 내용을 항목화하였다.

ㄷ. 담당 부서와 책임자,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시하여 문의처와 책임 소재를 밝혔다.

알아두기 보도 자료의 특징

목적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자료
작성 주체	기업, 정부·공공기관 등
성격	날짜, 수치, 사건, 인물 등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함.
형식적 특징	• 기사 형식에 맞춰 3인칭 시점으로 작성함. • 제목, 부제, 주제문, 본문, 참고 자료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함.
언어적 특징	• 간결하고 완결된 문장을 사용함. • 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명확성, 공공성을 지키고자 함.
정보 배열	핵심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 및 주요 사실, 세부 정보 순으로 구성함.

- 06 이 게시물은 글과 함께 이모티콘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황별 대처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 줌으로써 국민이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07 이 게시물은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사태',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같이 해시태그(㉠)로 핵심어(㉡)를 표시하고 있다. 해시태그를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어 정보 공유와 검색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 08 기관사는 승객의 일상적 고단함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감적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답풀이 ① 승객이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③ 전문 용어가 아니라 친근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승객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④ 기관사 본인의 고충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하는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⑤ 승객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격려일 뿐, 개개인의 사적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09 다섯 번째 카드 뉴스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온라인 호소가 진정서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공적 문서의 영향력이 개인적 표현보다 작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 10 아홉 번째 카드 뉴스에는 '말 한마디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사적인 말이나 게시물이 순식간에 공적 여론을 형성하고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언어가 공공성을 띌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지니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단원 평가

281~285 쪽

-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사대주의의 정서, 능력주의의 폐해 10 첫째, '임시 휴관 안내', '휴관 일정', '운영 재개', '익일'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각각 '문을 잠시 닫습니다', '도서관 닫는 기간', '다시 여는 날짜', '다음 날'과 같이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성을 높인다. 둘째, '장서 점검 및 서가 재배치'와 같이 일반 이용자에게 생소한 전문 용어를 '보관 중인 책을 점검하고 다시 배치'와 같이 친숙한 표현으로 풀어 씀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소통성을 높인다. 11 ④ 12 ③
13 ⑤ 14 ③ 15 이 게시물은 해시태그와 이모티콘, 구어체 표현으로 이용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카드 뉴스 형태의 시각 자료를 통해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매체적 특성은 정보 수용자가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공공 언어의 소통성을 높인다.

- 01 바람직한 공공 언어는 형식적 정확성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성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공공성·정보성·용이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형식적 정확성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나)에서 공공 언어의 유형을 문어와 구어로 나누어 살펴 보고 있다.

③ (라)에서 어려운 정책 용어는 정책의 취지를 전달하기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정책 참여에서 소외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 넓은 의미의 공공 언어는 언론, 교육, 출판 및 공공장소에서 쓰이는 언어까지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⑤ (가)에 따르면 공공 언어는 좁게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넓게는 언론·교육·출판·공공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언어를 의미하므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02 <보기>에 제시된 기상 캐스터의 일기 예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날씨라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는 공공 언어의 넓은 의미에 부합하므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기상 캐스터의 발화는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기관 내부에서만 소통되는 발화가 아니다.

③ 기상 캐스터의 발화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 소통이므로, 사적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상 캐스터의 발화는 구어 형식으로 전달되며, 문어에 해당하는 게 시문이나 법령과 다르다.

⑤ 기상 캐스터는 격식 있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성은 언어가 사용되는 목적과 맥락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공성이 약화된 언어로 볼 수 없다.

03 용이성은 적절한 문장의 길이,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 시각적 편의성 고려 등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피는 요소이다.

(오답 풀이) ① 맞춤법, 표준어, 문법, 문장 구성 등의 어문 규범을 지키는 것은 소통성이 아니라 정확성의 세부 요소에 해당한다.

② 공공성은 비속어, 욕설, 차별적 표현을 배제하고 품격을 갖추는 것으로, 특정 집단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공공성에 어긋난다.

④ 정확성은 어문 규정에 맞게 쓰고 문장을 바르게 구성하여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⑤ 정보성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요소이다. 이는 정보의 형식·양·배열의 적절성과 관련 있으며, 전문 용어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4 (라)에서는 '바우처'와 같은 외국어를 정책명에 사용할 경우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한다. 어려운 정책 용어가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책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05 (마)는 바람직한 공공 언어 사용을 위해 생산 주체와 수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가 재난 안내 문자를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 보낸 것은 공공 언어의 소통성과 용이성을 실천한 ㉔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방송사의 자극적인 홍보 문구는 공공 언어의 품격을 해친다.

② 서체는 핵심을 강조하거나 내용 간 위계를 표현하는 장치로 가능하므로, 이를 일괄 통일하면 정보 전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④ 안내문의 어려운 법률 용어는 수용자의 이해를 가로막아 국민을 정책에서 소외시킨다.

⑤ 서체는 핵심을 강조하거나 내용 간 위계를 표현하는 장치로 가능하므로, 이를 일괄 통일하면 정보 전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06 (가)에는 이 불화가 조선 숙종 때 제작되었다는 시기와 예술적 가치 등은 제시되어 있지만, 국가에 의해 보물로 지정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길이 8.36m, 폭 4.32m'라는 수치를 통해 대상의 크기를 알 수 있다.

② '재질은 마본채색', '하늘색으로 처리' 등의 표현을 통해 대상을 제작한 방식을 알 수 있다.

③ '둥근 원', '둥글넓적한 얼굴', '풍부한 둥근 어깨' 등의 묘사를 통해 대상의 외양적 특징을 알 수 있다.

④ 조선 효종·숙종 때 불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 준다는 평가를 통해 대상의 예술적 가치를 알 수 있다.

07 공공 언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이성과 소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권위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공공 언어의 평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08 (가)와 (나)는 모두 평서형 어미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결 표현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상의 정의와 용도를 먼저 배치하여 독자가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② '마본채색'을 '거친 삼베 바탕에 채색하는 방식'으로 풀어 써 독자의 부담을 줄였다.

③ 대상의 실질적인 쓰임새를 추가하여 독자가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④ '보관', '광배' 등 전문 용어에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09 <보기>는 공공 영역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을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 정서'의 영향이고, 둘째는 학력이나 외국어 능력을 개인의 정당한 성취로 보는 '능력주의의 폐해'이다.

10 **서·논술형** <보기>의 안내문에는 한자어와 전문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풀어 씀으로써 공공 언어의 소통성을 높이고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임시 휴관 안내', '휴관 일정', '운영 재개', '익일'은 한자어 중심의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고 의미 파악이 직관적이지 않으므로, '문을 잠시 닫습니다', '도서관 닫는 기간', '다시 여는 날짜', '다음 날'과 같이 쉽고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장서 점검 및 서가 재배치'는 도서관 전문 용어로 일반 이용자에게는 생소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관 중인 책을 점검하고 다시 배치'와 같이 친숙한 표현으로 풀어 써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소통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공공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하고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
공공 언어의 요건인 '소통성'을 근거로 문제점을 올바르게 분석하였다.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세 가지 이상 찾아 쓰고, 올바른 표현을 함께 제시하였다.	☐
'첫째, 둘째' 등의 표지를 활용하여 수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

- 11 이 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공공 언어의 사용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공공 기관의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공공 기관은 구어체 표현, 유행어, 언어유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언어가 보다 친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답풀이 ① (가)에서 최근 정부와 공공 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이 확산되면서 공적 담론장이 확대되고 공적 언어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공공 언어생활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사람들이 의견을 능동적으로 주고받으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개인적 소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상을 서술할 뿐, 두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알아두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특징

매체적 특성	•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 • 댓글·공유·좋아요 등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함. • 이미지·영상·이모티콘·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함.
소통 효과	• 구어체 표현과 친근한 어투로 이용자와 친근감을 형성함. • 해시태그·이벤트·공유 기능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함.

- 12 <보기>의 기관사는 “간밤에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 단잠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과 같이 승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구어체 표현 등을 활용하여,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이므로,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답풀이 ① ‘오전 7시 50분’이라는 시각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운행 안내에 해당한다.

②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는 명령이 아닌 권유·청유의 표현으로, 기관사는 승객에게 강제나 지시가 아닌 부드러운 당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기관사는 승객의 출근길 상황과 식사를 걱정하는 공감의 표현을 건넨 뿐,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공유하지 않는다.

⑤ 열차 안내 방송은 전통적인 일방향 전달 매체로 기관사가 승객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 13 (나)에서 사적 언어(㉡)는 개인과 관계되는 언어라고 정의하며, 혼잣말, 일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 언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답풀이 ①, ②, ④ 공적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나)에서 일반적으로 공적 언어는 국가나 사회와 관계되는 공식적 상황에서 쓰이며,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는 언어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언어의 공적 책임과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가상 공간에서 공적 담론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맥락에서 강조되는 공적 언어의 특징이다. 사적 언어도 사용 상황과 전달 범위 등에 따라 공공성을 가질 수 있으나, 항상 공적 책임과 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14 <보기>의 보도 자료에서는 정책 발표의 보도 주체를 산림청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도 주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언론이 보도할 구체적인 시점을 지정하여 ‘20□□ 6. 12. (월) 11:00 이후 보도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보도 자료는 공식 문서로서 객관적 사실 전달에 적합한 문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산사태 예보’ 24시간 → 48시간 전으로 당기고, 위험 지역 관리 강화와 같은 헤드라인을 제시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⑤ ①, ②, ③, ④와 같이 숫자 기호로 항목화하여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15 서·논술형 <보기>의 게시물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안내문이다. 이 게시물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관련된 주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모티콘과 카드 뉴스 형식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구어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와의 심리적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제시하여 이용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매체적 특성을 반영한 표현 방식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 언어의 소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평가 기준	확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매체적 특징(해시태그, 이모티콘, 시각 자료 등)을 포함하여 썼다.	☐
내용 전달의 효과 측면에서 게시물이 지닌 장점(이해 용이성, 참여 유도 등)을 서술하였다.	☐

+ 이해 더하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유형과 정보 전달 방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과 상세 내용이나 원본 자료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짧은 글과 이미지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적합하며, 블로그, 기관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원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전달하려는 정보의 성격과 이용자의 정보 수용 방식에 따라 적절한 SNS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한 뒤 상세 자료로 연결하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서로 연동되어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2. 바람직한 언어문화 실천

탐구 1 일상에 숨은 차별·혐오 표현

확인 문제

287~292 쪽

- 01 차별 02 O 03 O 04 비정상 05 인권
06 ⑤ 07 ② 08 지위 09 ④ 10 하늘
11 X 12 ㉠: 연주향색 ㉡: 살구색 13 피부색

- 01 특정 대상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을 차별 표현이라 한다. 이는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 02 차별·혐오 표현의 기저에는 익숙한 것은 옳고 낯선 것은 그르다는 편견이 자리한다. 이러한 편견은 '나' 또는 '우리'와 다른 대상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가 담긴 것으로, 결국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이어진다.
- 03 차별·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 04 차별·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는 핵심 이유는 인간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열등하거나 비정상이라고 규정하여 차별적 위계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 05 차별·혐오 표현은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를 거부한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 06 차별·혐오 표현은 한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억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

알아두기

차별·혐오 표현의 위험성

- ①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함.
- ②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침해함.
- ③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억압을 드러냄.
- ④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낙인을 강화하고 재생산함.
- ⑤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함.
- ⑥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사회 통합을 방해함.



일상에서 무심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07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롱과 희화화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적 강자나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권력 감시 또는 풍자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권력자를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표현은 혐오 표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 더하기

풍자의 개념과 기능

개인이나 사회의 부조리, 결점, 어리석음 등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 기발한 비유와 상징, 과장과 왜곡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비판하는 수사적 기법이다. 풍자의 일차적 수단은 '웃음'이며, 그 목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여 사회적 각성이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풍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판받는 대상과 이를 지켜보는 관객 사이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가진 강자를 대상으로 삼을 때 비판의 정당성과 날카로움이 극대화된다.

- 08 사회적 강자는 웃음거리가 되어도 그 권력이 유지되는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은 그들이 가진 지위 자체를 격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09 <보기>의 문장은 특정 집단 전체를 하나의 부정적 특성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언어로 드러낸 것이며,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집단을 낙인찍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① <보기>의 문장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 특정 집단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 ② <보기>의 문장은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있으나,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③ <보기>의 문장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비하하고 있다. 혹여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게으르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표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보기>의 문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편견을 확산시킬 뿐, 폭력이나 차별을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 10 이 자료는 '외국'이나 '살색'과 같은 표현에 특정 국가나 피부색을 기준으로 삼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살색'의 경우 크레파스 사례를 통해 피부색의 다양성을 보여 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살색'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대상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는 태도이므로, 이 자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하늘'이다.

(오답풀이) 인유: '외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떠올리는 나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서구 중심으로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시야를 확장한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태색: '살색'이라는 단어를 특정 색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피부색의 다양성과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11 '살색'이라는 용어는 1967년 일본의 공업 규격상 색명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여 들어온 것으로, 황인의 피부색과 유사한 특정 색을 지칭하도록 만들어졌다. 즉, 처음부터 다양한 피부색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기술표준원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색'을 '연주황색(㉓)'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특정 피부색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연주황색'이라는 한자어가 어린이들에게 어렵다는 추가 진정이 제기되자, 2005년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살구색(㉔)'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13 '살색'이 '연주황색'을 거쳐 '살구색'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던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자성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피부색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인종의 피부색만을 표준으로 삼던 관행이 인권 침해이자 차별일 수 있음을 일깨워 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탐구 2 삶을 형성하는 일상의 언어

확인 문제

299~302 쪽

- 01 O 02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언어생활
03 자석 04 네트워크 05 ㉓ 06 (1) O (2) X
07 ㄷ 08 사회적

01 미국의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가 생각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언어가 인간의 생각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위까지 결정하는 힘을 지닌다고 보았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또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하며 언어가 인간 존재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이해 더하기

하이데거의 언어관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존재를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안에서 살아가며, 언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로서 드러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방식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02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언어생활이란 수동적이고 위축된 태도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말에 늘 깨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상에서 익숙하고 무감각하게 사용해 온 언어를 의식적으로 살피고, 언어 속에 투영된 자기 인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수정·보완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03 글쓴이는 말을 자석에 비유하고 있다. 자석이 그 주변에 저장할 형성을 하듯, 말 속에 담긴 긍정적·부정적 속성이 현실에 작용하여 그에 따라 온갖 것들이 달라붙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04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를 '네트워크 지수(공존 지수)'라고 한다. 이는 타인과 공존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지적 능력이 높아도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을 경우 이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

05 공자가 심제량에게 답변한 내용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힘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까지 불러 모아 관계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람을 모으는 긍정적인 언어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06 (1) 별명을 붙이는 행위는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를 '결탁한다'고도 표현하며, 결탁을 통해 특정인에게 별명을 붙여 의도적으로 집단에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배제할 수 있다.

(2) 별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별명과 달리 긍정적인 별명만 소속감에 바탕을 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는 별명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이때 별명은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끼리 서로를 알아보게 한다. 따라서 별명은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ㄷ).

○ 오답 풀이 ㄱ. 별명은 스스로 짓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인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ㄴ.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은 부모님이나 국가가 정해 준 것이므로, 개인이 선택한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08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별명을 부르는 일은 사회적 공간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이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원하는 모습이나 역할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알아두기

별명을 부르는 행위의 의미

- 이름은 주어지지만 별명이나 가명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
-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별명을 부르는 행위는 개인의 역할이나 의미, 사회적 공간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자리를 재정립하는 일임.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먼저 차별은 일상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고 미묘하게 나타난다. 이는 차별이라는 인식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언어생활에서 문제가 된다. 07 혐오 표현을 접했을 때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그것이 차별적 표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담은 대항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08 ③ 09 ② 10 ② 11 ④ 12 ④

13 긍정적인 언어 표현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반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킨다.

14 ㉠: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적 상황으로, 구어적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적절하다. ㉡: 행정실 안내문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황이므로 객관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적절하다.

01 차별 표현과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열등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오답풀이) ① 차별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근거로 우열을 나누는 인식을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혈액형에 따른 수혈 가능성의 차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지니며, 차별 표현은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지 권리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④ 차별·혐오 표현은 상대를 열등하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양립할 수 없다.

02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는 혐오 표현을 억제하고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특정 대상을 웃음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대상을 비하하거나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혐오 표현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②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드러내는 것은 특정 집단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게 하므로, 혐오 표현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③ 특정 집단이 질병이나 범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므로, 혐오 표현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⑤ 특정 대상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비인격적이고 경멸적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혐오 표현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

알아두기 혐오 표현의 유형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표출함.
- 상대를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이고 경멸적인 이름을 붙임.
- 상대를 웃음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음.
-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보호·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함.
- 상대가 질병과 범죄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부추김.
- 상대방에 대한 차별,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함.

03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색'이라는 색명이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하며, 황인이 아닌 인종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살색'이 문제가 된 핵심 이유는 특정 피부색만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살색'이라는 용어가 일본 공업 규격의 색명을 글자 그대로 번역해 들어온 것은 해당 색명의 유래에 해당한다.

② '살색'은 1967년에 한국 산업 표준에 공식으로 등재된 표현이었다.

③ 기업들이 기술표준원의 색명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살색'은 특정 색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특정한 표현이다.

04 이 글에는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언어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변화가 국가 기관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며 시민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외국인과 어린이들의 진정을 계기로 '살색'이 '연주황색'을 거쳐 '살구색'으로 변화한 사례는, 언어 표현이 사회 구성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살색'을 대체하기 위해 채택한 '연주황색'이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표현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살색'이 '살구색'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상을 바꾼 결정적 30선'에 선정된 것은, 색명 하나를 바꾸는 것도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살색'이 특정 인종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색명을 개정한 사례는, 언어가 특정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언어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05 '연주황색(㉠)'은 어린이들이 제안한 대체어가 아니라 2002년 기술표준원이 행정적으로 채택한 표현이다. '복숭아색'은 어린이들이 진정에서 예시로 언급한 표현 중 하나였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주황색'이 '복숭아색'과 함께 어린이들이 제안한 대체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연주황색'은 한자어를 조합하여 만든 색명이다.

② 2004년 어린이들이 '연주황색'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된 단어이다.

③ 기술표준원은 2005년 5월 '연주황색'을 대신하여 '살구색'을 최종 확정하였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술표준원이 2002년 11월 '살색'의 대체어로 '연주황색'을 채택하였다.

- 06** **서·논·술형** 먼저 차별은 일상 속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고 미묘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차별이라는 의식 없이 무심코 반복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먼지 차별' 표현이 작고 미묘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먼지 차별' 표현이 지속적인 상처를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인과적으로 설명하였다.	☐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④ 이해 더하기

먼지 차별의 유형과 대응 방법

미세한 모욕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전제한 발언 예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네, 대단하다."
미세한 무효화	상대의 불편함이나 상처를 평가 절하하며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행 예 "요즘 세상에 사회적 약자라고 불편할 게 뭐 있어?"
미세한 공격	장난을 가장해 상대를 비하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예 "그렇게 많이 먹다가 조만간 굴러다니겠다."



-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오래 축적될 경우 상대방에게 위축감과 소외감을 유발함.
- 문제적 표현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고치고, 서로의 언어 습관을 배려 있게 돌아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함.

- 07** **서·논·술형** 혐오 표현을 접했을 때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수동적 태도는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혐오 표현이 지닌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지적하며,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태도는 혐오 표현의 재생산을 줄이고 건강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대응할 때는 수동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를 직접 지적하며 대안적 표현을 실천하는 능동적 태도가 필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혐오 표현에 대해 지적하거나 대체 표현을 사용하는 등 능동적 대응 태도를 제시하였다.	☐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포함하였다.	☐

- 08** <보기>에서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인간의 생각, 태도,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 사용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오답풀이** ① 언어가 문화권마다 다르게 기능한다는 점은 언어의 상대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 언어가 사회적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은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끊임없는 변화는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
⑤ 감정 표현은 언어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이다.

- 09** ③에는 수동적으로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 '자발적으로 자신의 말에 늘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공기처럼 익숙해져 무감각해진 언어를 의식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과 부합한다.

- 오답풀이** ① 생동감 있는 감각적 표현을 익히는 것은 표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③ 관습적 언어 표현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은 기존 언어를 따르는 태도이다.
④ 개성 있는 언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창의성과 관련된 것이다.
⑤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외부에 기준을 둔 것이다.

- 10** 이 글은 별명이 주로 타인에 의해 붙여지지만 스스로 별명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가명은 자신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낼지를 마음대로 정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성격이 강조된다. 따라서 별명이 가명과 달리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부정적인 별명은 자존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부정적인 별명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③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다르게 찾을 수 있고 별명 또한 사회적 공간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별명과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④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 집단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별명은 개인을 집단에서 배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⑤ 별명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하며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별명이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 11** <보기>에서 '느림보'는 같은 반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다. 별명은 집단의 결탁을 바탕으로 붙여진다고 하였으므로, '느림보'가 집단의 결탁 없이 자연스럽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느림보'는 말이 느리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B를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이므로, B를 남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상대를 추켜세우는 말이 별명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운동을 잘하는 A를 '에이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③ 별명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반 학생들이 A에게 붙인 '에이스'도 소속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별명이다.
⑤ '에이스'는 운동을 잘하는 A의 능력에서, '느림보'는 말이 느린 B의 말투에서 비롯된 별명이다.

12 이 글에서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별명을 부르는 일은, 사회적 공간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이 붙여 준 별명을 거부하는 것을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별명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별명을 부를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부정적인 별명은 특정한 특징을 바탕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별명이 상대를 특정한 틀에 가두는 표현인지 성찰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별명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적 공간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별명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⑤ 가명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명 대신 스스로 이름을 정해 부르는 것을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보는 반응은 적절하다.

13 **서·논술형** <보기>에서는 언어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인간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언어 표현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반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긍정적인 언어 표현이 인간관계 형성 또는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
부정적인 언어 표현이 인간관계 악화 또는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
언어 표현과 인간관계 변화 간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14 **서·논술형** ㉠은 친한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적인 대화 상황으로 구어적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눈도 엄청 많이 온다더라고. 으, 생각만 해도 너무 춥다.'와 같이 구어적 표현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말을 사용하여 맥락에 적절하다. 반면 ㉡은 행정실 안내문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상황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격식 있는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다.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고 최고 적설량 40cm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와 같이 수치를 활용한 객관적 정보와 격식체 표현을 사용하여 맥락에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은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적 상황임을 밝히고, 구어적·감정적 표현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식 상황임을 밝히고, 객관적·격식적 표현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

➤ 이해 더하기

상황 맥락

상황 맥락이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담화의 목적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등
담화의 상대 (청자 또는 독자)	친밀도, 사회적 지위, 연령대 등
담화의 장면	사적인 대화, 공적인 발표, 행정적 안내 등